

기억의
상자



이 책을 사랑하는 아버님과 어머님께 바칩니다.

장몽인님의 인생이야기는 본인과 자녀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주)스튜디오 크로스컬처(SCC)의
‘나의 인생이야기’ 팀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프롤로그	• 7
내 고향 황해도 곡산	• 12
나의 또 다른 이름, 오재	• 15
배움의 든든한 후원자, 부모님	• 16
배움의 시작, 서당	• 18
내 생애 첫 학교, '운중초등학교'	• 20
배움의 꿈을 꾸다.	• 22
군대식 교육 '함흥사범'	• 29
마음에 묻은 이름 '부모님'	• 35
내 인생의 새로운 꿈	• 38
해방, 그러나 여전한 가난의 굴레	• 41
혈혈단신 남하, 홀로서기의 시작	• 45
내 인생의 동반자, 이춘희	• 50
날아가버린 나의 처음 집	• 56
조국과 내 인생의 시련, 한국 전쟁	• 60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	• 71
집, 꿈으로 한발 다가서다	• 80
스스로 자신의 길은 찾은 자녀들	• 86
또 다른 나의 가족, 형제들	• 104
살아온 발자취를 되돌아 보며	• 110
부록	• 116





두 발로 3층 계단을 오른다. 사람으로 치면 중년의 문턱을 넘어간 나의 사무실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편안한 엘리베이터 대신 우직한 계단만 갖고 있는 내 오래된 사무실은 나를 꼭 닮아있다. 고장 날 일도, 놓치고 후회할 일도 없는 계단. 그것을 한발 한발 천천히 디디다 보면 어느새 3층 사무실에 도착해 있다.



내가 살아온 90년의 인생도 그러했다. 계단을 오르듯 한 발 한발 성실하게 걸어가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다. 사람에게 있어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나온 발자취는 물론 자신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려 하는 의지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사무실로 출근한다.

이 나이에 여전히 사무실로 출근하는 나를 보고 주위에서 그 비결을 묻곤 한다. 비결이라 하기엔 너무 소박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몇 십 년을 한결같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있지.

규칙적이고 성실한 것이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
이 세상 떠나는 날이 곧 은퇴하는 날이 되겠지.



고 생각한다. 게다가 모든 일을 순리에 맡기고 순응하며
살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다.

나의 가장 큰 꿈,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행복한 가정이었다.

젊은 시절, 집이라는 울타리를 잃고 홀로 떨어졌던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따뜻한 가정에 항상 목말라 있었
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이 '가화만사성'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이 화목해야 일을 성공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한창 일하던 시절에 끼니도 챙길 새 없이 바쁘게 뛰어다닐 때도 퇴근시간인 오후 6시만큼은 항상 지켰다.

집에 돌아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가족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서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다.

집이란 가족 하나하나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다.

이 울타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홀로 남하해 세상 천지에 나 하나밖에 없다는 외로움에 치를 떨던 그 시대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내 가족을 지켜줄 집을 갖겠다고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가족만큼은 내가 겪은 이런 고통을 모르게 보호해 주겠다고, 그리고 나의 가족을 보듬어 줄 서울 하늘 아래 내 집을 갖겠다고. 나는 그렇게 집을 꿈꿨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온 지금, 우리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준 집과 그 속에서 바르고 훌륭하게 자란 내 자녀들이 있다. 이제 그들 또한 각자의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다.

문득 고향집이 생각난다.

지금은 갈 수조차 없는 그곳. 오직 내 기억 속에서 나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그곳.

비록 고향집은 기억 저편으로 저물고 있지만 내가 일군
나의 집은 나와 내 자녀들을 보듬어 주었고 내 곁에 머
물고 있다.

흐흐하드. 내가 태어나지 않은 곳.

그리워도 가 볼 수 없잖아, 거기.

내가 다니던 사랑, 내 부모님의 묘, 그리운 내 형제들,
그러게……아직 살아있을지 모르겠네.

얼마나 먼했을까.

내 생전 가 볼 수 있을까?

허허……



황해도 산골짜기 곡산, 내가 태어난 곳.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곳의 풍경은 오직
 내 어린 시절의 기억 저 편에만 남아있다.
 이름은 물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내 어린 시
 절의 동무들, 그들과 함께 뛰어 놀았던 동네
 곳곳의 풍경은 언제 보았는지 내용이 기억나
 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득하게 떠오
 른다.

변변한 놀이터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마을 입
 구를 표시하는 이층으로 된 문 옆 공터와 집
 앞에 흐르는 개울 정도가 나와 내 동무들의 놀
 이터였다. 동무들과 자치기를 하다가 어머니
 가 부르는 소리에 집으로 뛰어가던 어린 내가
 있었던 그곳, 나는 그곳에서 자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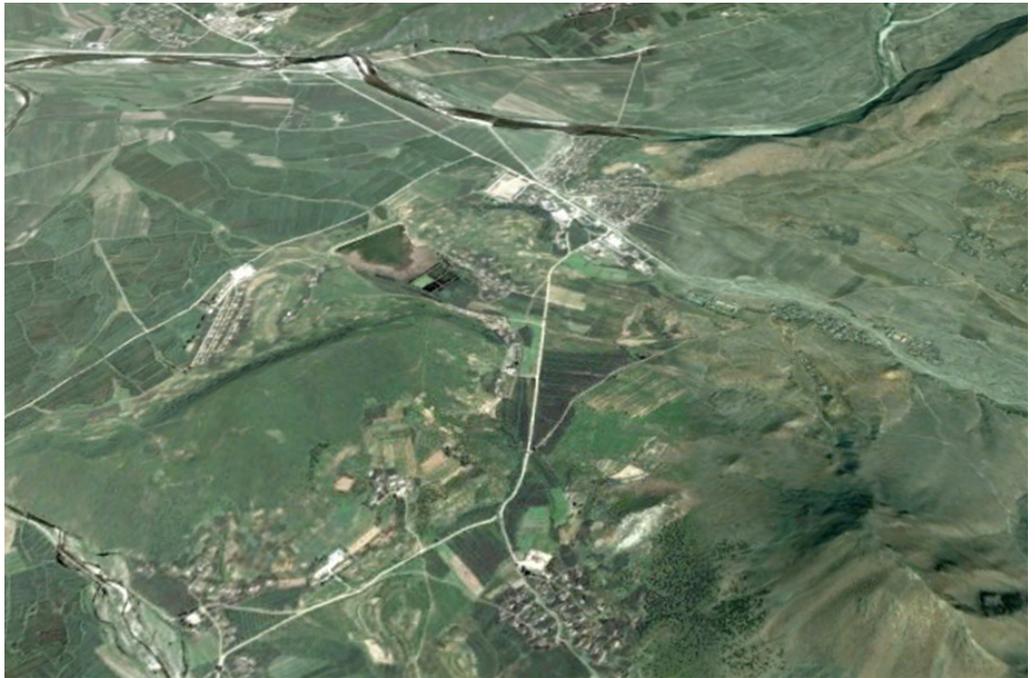


우리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겨우 이
십여 호의 집들만이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예전에 철광산이 있던 곳이었는데 철을 채취한 후 쌓아
두던 평지에 철을 다 덜어내고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
었다. 주로 조, 옥수수, 감자 등을 재배했는데 다행히 땅이
비옥해 무척 잘 자랐다. 그 덕에 풍족하진 않지만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곳이었다. 그
러나 산골인 탓에 논이 없어 쌀밥은 보기 힘들었고 주로
콩깨묵으로 끼니를 대신했다.



게다가 동네 모든 집들은 자급자족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돈을 만들 방법은 아예 없었다. 그래서 마을 모두 가난했다. 우리 집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부지런했던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밤낮으로 일을 하셨지만 땅은 우리 가족들이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수확량만을 허락하였다. 모두가 가난하던 그 시절, 하지만 가족들의 끈끈한 정이 있던 그 시절, 비록 어떤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유년기이지만 가족들의 사랑덕분에 따뜻함으로 기억된다.



황해북도 곡산군 유촌리(현, 덕흥리)의 원거리 모습

“오빠야! 아니 이놈이 어디간 거야. 오빠야!”

나는 ‘오빠’다. 내 이름 ‘장몽인’보다 더 자주 불려졌던 호칭 ‘오빠’.

일곱 형제 중 다섯째였던 나는 부모님께 ‘오빠’였다. 부모님께서는 우리 형제를 이름 대신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오빠야, 육째야, 칠째야 라고 부르셨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한번도 셋째를 부르신 적은 없다.

나는 셋째 형에 대한 기억이 없다. 나의 셋째 형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셋째의 자리를 넷째에게 물려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셋째 형은 ‘셋째’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족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나의 부모님은 너무 짧게 당신 곁에 머물렀던 셋째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들을 이름 대신 첫째, 둘째 등으로 불렀던 것 같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부모님만의 방식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진하게 가르쳐주시고 계셨다.

우리 마을의 어르신 중 한글이나 천자문을 아는 분은 극히 드물었다. 사실 그당시는 그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 먹고 살기 바빴고, 그로 인해 글공부를 할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지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다른 어르신들과는 달리 천자문과 한글을 깨우치신 분들이었다.

그 덕에 마을에서 유식자 집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어린 나는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러웠고, 나도 부모님들처럼 어서 글을 읽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 동네 대다수 어른들은 자녀들의 배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던 분들은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농사는 손이 많이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거들어야 집안이 근근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보다는 농사일을 거들도록 시켰다. 그래서 자녀들의 공부는 당연히 등한시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뛰어 놀던 동무들 대다수는 공부에 대한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부모님들은 배움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다. 하루 종일 농사일로 바쁜 어

나는 한글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다.
글자 하나 하나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신이 났다.
그 덕에 한글을 배울 기회 얻을 수 있었다.

머니였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어린 나를 붙잡고 한글을 가르쳐주셨다.

늦은 저녁, 어머니께서는 바느질을 하실 때마다 나를 불러 춘향전, 심청전 등 한글 고전소설을 소리 내어 읽게 하셨다. 당신이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책을 읽게 하신 것은 나름 어머니만의 교육법이였다. 그렇게 한글소설을 소리 내어 반복적으로 읽은 덕에 글을 잘 읽게 된 것은 물론이고, 문장의 구조와 맞춤법 등 국어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최초의 지적 자극을 주신 나의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와 나의 따뜻한 저녁은 깊어져 갔다.



그러다 어느 새, 점점 아는 것이 많아지고 어머니가 알려주는 것이 성이 차지 않게 되었다. 나는 더 많은 것에 대해 알고 싶었고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은 점차 커졌고 그에 비례해 학교에 다니고 싶은 바램 또한 점차 커져갔다.

하지만 그 당시의 나에겐 학교를 다닌다는 자체가 불가능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군청소재지인 곡산읍에 있는 보덕초등학교였다. 그 곳은 집에서부터 무려 9km나 떨어져 있었다. 9km면 어른의 걸음으로도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다. 걷는 것 이외의 다른 교통 수단이 없었던 그 당시에 어린아이

가 그 먼 길을 매일 걸어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형들이 다니던 동네 서당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당 가는 형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배웠다.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들지만 해방 전만 해도 학교가 많지 않았던 터라 서당은 엄연한 마을 대표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대략 2년쯤 형들을 따라 서당을 드나들며 귀동냥으로 천자문 뿐만 아니라 사자성어 또한 400여개 정도는 외울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귀동냥으로 배웠지만 배우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신이나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내가 기특했는지 없는 살림에 책도 구해주시고 공책도 사 주셨다. 게다가 항상 엄격하고 곧으셨던 아버지 또한 나를 ‘공부시켜야 하는 아들’이라 하시며 독려해 주셨다.

그렇게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배움의 꿈을 점차 키워가고 있었던 어느 날,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다.

내 나이 12살, 학교를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초등학교가 생긴다는 소문이
돌았다. 집에서 3km떨어진 면소재지인 운
중면에 4년제인 운중초등학교가 생긴다는
것이다.

소문을 먼저 들은 아버지는 나에게 입학지
원을 하자 하였고 나는 학교를 갈 수 있다
는 기쁨에 너무 흥분하여 뿔 듯이 기뻐했다.
입학 시험을 보러 간 날, 생애 처음 보는 시
험이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한글은 물론 천
자문과 사자성어, 구구단까지 깨치고 있었
던 덕에 자신 있었다.

다행히 시험은 잘 끝나고 나는 바로 3학년으
로 편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내 첫 학교인 운
중초등학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유선생님을 만났다.

내 생애 첫 선생님이자 내가 가장 존경했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가르침에 대한 열정
이 가득했던 그 분.

유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시간은 너무 좋았
다. 선생님에게서 느껴지는 힘과 열정,
그리고 그분의 지식 또한 무척 존경했다.

그런 유선생님을 닮고 싶었다. 유선생님 같은 열정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선생님을 무척 따랐고, 선생님도 그런 나를 유독
예뻐해 주셨다.

유선생님은 가톨릭 신자였는데, 우리에게 때때로 가톨
릭 교리도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을 따라 처음 가톨릭을
접하고 가끔 성당에도 나가곤 했었다.

처음 접한 가톨릭은 낯설고 조금 어려웠지만 내가 존경
하는 유선생님과 함께라서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렇게 내 첫 학교의 추억은 끝나고 있었다.

학교가 먼 탓에 수업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야 했는데,
해가 늦게 뜨는 겨울 새벽에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산길을 걸어 학교에 가는 것이
아직 어린 나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었다.

운중초등학교가 4년제였던 탓에 4학년을 마친 후
다시 다른 초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운중초등학교를 제외하
면 9km 정도 거리에 있는 보덕초등학교밖에 없었다. 하
는 수 없이 보덕초등학교 5학년으로 편입을 해야 했다.
예상했던 대로 보덕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다니는 내내 무척 고
생을 했다. 통학시간이 무려 왕복 5시간 정도 걸렸기 때

또한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불어 머리 위
 에 책보따리를 얹고 강을 건너가고,
 겨울철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
 여기저기 뜬 손과 볼을 부여잡고
 내선운 칼바람을 맞으며 학교를 다녀야 했다.



문이다. 새벽에 일어나 저녁 늦게 오는 그런 생활을 하
 는 나를 보고 동무들은 고생을 사서 한다고 했지만 나는
 단 하루도 학교를 거르지 않았다. 그렇게라도 배울 수 있
 다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덕에 5학년으로 편입하자마자 바
 로 반장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졸업 때까지 한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또, 졸업 할 때에는 황해도지사상
 을 수상하여 부모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렸다.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생활이 끝나갈 무렵, 또 다른 고민이 닥쳐왔다.

당시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계속 하려면 서울의 중학교로 유학을 가는 것이 당연시되던 때였다. 그 당시 서울에는 대여섯 개의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총 12개 남짓의 중학교가 있었고, 이들 학교 신입생 정원은 보통 백여 명 정도였다. 때문에 서울시내 모든 중학교를 통틀어도 고작 천여 명 정도 입학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수재들은 다 서울로 모였고, 중학교 입학시험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

사실 나는 자신이 있었다. 아니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에 무슨 한이 있어도 서울의 중학교에 가고 말리라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내 꿈을 좇아가기엔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나의 중학교 학비와 서울에서의 자취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집에는 있을 턱이 없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두 아들을 둔 큰 형, 강원도 처갓집 근처에 살림을 차리고 아들 하나, 딸 둘을 둔 둘째 형, 아직 혼인 안 한 넷째 형, 그리고 어린 두 동생.

근근이 먹고 사는 우리 집안 형편에 나 혼자의 꿈을 위해 서울 유학을 택한다면 남은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감당 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게 하는 꼴이라 차마 선택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 는 학구열도 중요했지만 그 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공부를 지원해주시던 부모님도 집안 사정상 차마 서울 유학에 대해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계실 때 희망의 빛이 찾아왔다.

“학교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닌데,
너 내가 어디 다녔는지는 알고 있냐?”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의 뜻밖의 말에 잠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 분은 곡산군 전체에서 유일하게 함흥사범학교를 다니셨던 분이였다.

하지만 나는 그 분이 함흥사범에 다녔다는 것을 주위에서 얼핏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학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분의 입을 통해 들은 함흥사범학교는 내 기대 이상의 곳이었다.

아, 함흥사범학교!

그 순간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가왔음을 느꼈다.

당시 사범학교는 전국에 5개가 있었다.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를 포함하는 경성사범이 있었고, 경상도에는 대구사범, 전라도에는 전주사범, 평안도에는 평양사범, 그리고 함경도에는 함흥사범이 있었다. 이렇게 전국에 사범학교가 5개 밖에 없었던 터라 정식 사범학교 출신 선생님들은 드물었고, 그로 인해 사범학교 출신 선생님들의 인기는 상당히 좋았다.

게다가 사범학교는 관립학교로 당시 일제치하의 총독부 관할이었기 때문에 성적이 상위 삼분의 일만 되면 전액 장학금으로 수업료가 면제되고, 기숙사 생활에 의복까지 제공되어 요즘 가치로 치면 월 300만원에 해당되는 정도의 금액을 받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더 이상 나에게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당장 함흥사범을 목표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당시 사범학교 시험은 일반중학교 시험보다 한달 정도 빨라 사범학교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다시 중학교 시험

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었다.
그래서 일본일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함흥사범 시험일이 다가왔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추웠다. 긴장을 한 탓인지, 아니면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살짝 떨리는 손을 비벼 녹여가며 곡산읍까지 걸어갔다.

곡산읍에서 목탄 버스*를 타고 평북 양덕까지, 그리고 양덕에서 원산을 거쳐 함흥까지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가는 동안 긴장을 다스릴까 하여 빠르게 지나쳐가는 기차 밖 풍경을 바라봤다. 그러나 동트기 전의 어두운 창밖 풍경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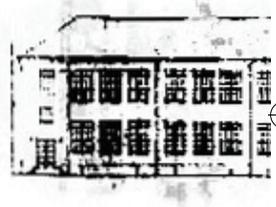
계다가 터널을 통과할 때면 기차의 창문은 인정사정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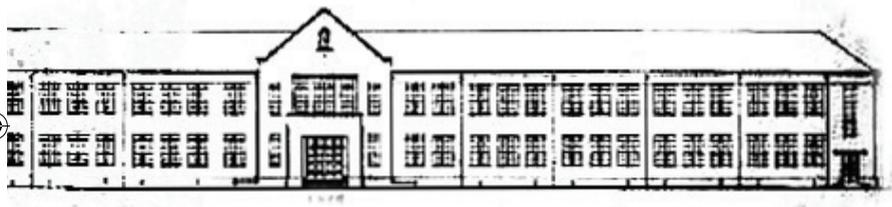
* **목탄버스** 처음에는 휘발유 버스로 개발되었지만, 일본이 전쟁(지나 전쟁)을 유발시키는 바람에 휘발유 부족현상이 생겨, 휘발유 배급이 중단된 이후에는 차체 뒤에 목탄가스 제조기를 적재하여 목탄가스로 버스 연료를 대체하였다.



이 석탄의 메케한 연기를 토해냈는데 그 연기로 숨은 턱
막혀왔고 마음은 더 답답해졌다,
하지만 점점 동이 터 가는 동안 시험에 대한 긴장은 미래
에 대한 설렘으로 바뀌어갔다. 점점 내 정신도 또렷이 맑
아지고 있었다. 여전히 터널을 통과할 때면 쏟아져 들어
오는 메케한 연기가 내 숨을 막았지만 나는 더 이상 긴장
하지도, 떨지도 않았다.

그렇게 귀개의 터널을 지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함흥사범학교 본관
(1936 신축공사 입면도)

내 나이 16세, 20대 1의 막강한 경쟁률을 뚫고
우수한 성적으로 함흥사범에 입학했다.

한자를 많이 알고 있었던 덕에 일본어로 치르는 시험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다. 앞으로 5년 동안 부모님
께 손을 벌리지 않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아니, 5년 후 선생님이 되어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배움에 대한 길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보장되어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내 기쁨은 두 배가 되었다.

나의 함흥사범의 생활은 이렇듯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함흥사범의 생활은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무척 심했다.

내 기수는 일본인 35명, 한국인 65명이 있었는데, 입학시험 당시 한국인과 일본인이 분리되어 별도의 시험을 치렀고 그 결과 합격생의 3분의 1정도가 일본인이었다. 사실 한국 땅이니 한국인의 비율이 월등히 많았어야 했지만 당시는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그나마 한국학생들은 사상범으로 퇴학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무사히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제약 또한 많았다. 그렇게 퇴학 당한 학생 대부분은 서울로 가서 중학교에 편입을 하곤 했던 그런 시절이었다.

함흥사범학교에서의 기숙사생활은 군대와 같이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었다.

특히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엄격했다. 취침시간인 10시가 되면 기숙사의 모든 곳을 일제히 소등했다. 만약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것이 걸리면 복도에서 감시하던 일본 사감에게 몽둥이로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 그래서 나는 빛이 조금도 새어나가지 않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손전등을 비춰가며 소설책을 읽곤 했다. 그 때 읽었던 책 중에 일본 연애소설가 키쿠치 깡이 쓴 ‘셋뽕(첫 키스)’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나도 배짱이 제법 좋았던 것 같다.

바람이 절실했던 시절에
나에게 희망을 안겨준
함흥시범학교.

모진 훈련과 엄격한 규율로
무척 힘들었지만
나에게는 더 없이 고마운 곳이다.



함흥의 겨울은 유독 추웠는데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태반이었다. 게다가 바람이라도 심하게 부는 날이면 체감온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내려갔다.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새벽 4시에 기상을 하여 검도복으로 갈아입고 죽도를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 땀이 나도록 운동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많은 동기들이 힘든 훈련 때문에 적응 못하고 괴로워했다. 나 또한 매일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며 견디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공부 할 수 있다면 이까짓 훈련쯤이야 참아내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했다.

그래도 다행히 나에게는 어느 정도 고된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기초체력이 있었다.

한번은 60kg의 모래주머니를 차고 40km를 달리는 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다. 그 덕에 여름방학에 집에도 못 가고 학교에 남아 마라톤 훈련을 한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체력은 좋았다.

이렇듯 좋은 체력 덕에 졸업 후 황해도 해주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조선시군대회 마라톤 시합에 함경도 대표로 참가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상위권에는

들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 학창시절에 비해 2kg이나
불어버린 몸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 당시 해주근처
에는 재령곡창지대가 있어 논이 많아 밥을 해 먹을 수 있
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쌀이 없어 '콩깨묵'으로 끼니를 때
우던 학생시절보다 살이 더 찌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점점 강도가 세지는 일본
사관학교 식의 군사훈련은 숨막히도록 무겁게 나를 짓
눌렀다. 당시 지나 사변으로 나라 분위기는 흥흥했고,



함흥사범학교 동창 친목회기념 (1967)

함흥사범 동창을 만나면 의례 말이 많아진다. 청춘의 추억을 같이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끈끈한 동지애를 느끼며, 같이 공유한 기억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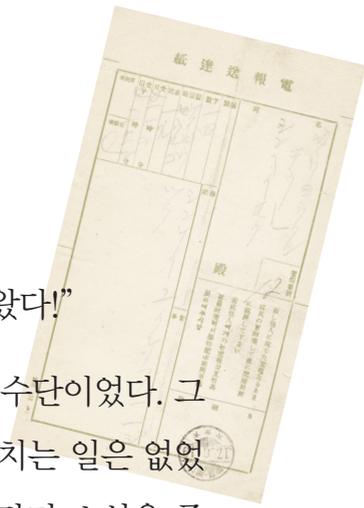
우리들의 훈련은 전장에 배치되어 사람을 죽이던 장교들이 직접 맡았다.

만약 훈련도중 뒤로 처지는 학생이 있으면 장교들이 따라오면서 일본 검(刀)으로 다리를 찢러댔다. 그 학생은 다리에 피를 흘려가면서 뛰어야 했는데,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뛰어야 했다.

이렇게 힘든 훈련을 마치고 나면 다리가 아파 화장실 가서도 앉아서 볼 일을 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서 일을 봐야 하는 지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다.

모진 훈련을 참기는 힘들었지만 배움을 계속 할 수 있는 현실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 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다가왔다.



“장몽인, 집으로부터 전보가 왔다!”

전보? 그리 익숙지 않은 통신수단이였다. 그 당시 큰 일이 아니면 전보를 치는 일은 없었다. 인편을 통해서 아니면 별달리 소식을 주고받을 방법이 없던 그 시절은 그랬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한 전보……

아버지의 부고였다.

하늘이 무너졌다. 눈 앞이 깜깜했다.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자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한창 먹성이 좋던 자식들을 위해 힘들고 쪼들리던 생활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닭을 잡아주시거나 주머니를 털어 돼지고기를 사 주시던 아버지. 허겁지겁 달려드는 우리 형제들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봐 주시던 나의 아버지. 나에게 학문을 독려하시며 항상 당신보다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시던 우리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셨던 아버지……

준비도 없이 허망하게 아버지를 보낸 함흥사범 4년은 그렇게 무심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 후, 홀로 집안을 꾸려가시던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지만 사범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도, 형제들과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다.

하지만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 함흥사범 5학년때 어머니마저 편찮으셨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유행병이란 너무 무서운 존재였다. 공교롭게도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유행성 인플루엔자에 걸려 결국 자리에

몸져눅게 되셨다. 동네에는 병원은커녕 의사도 없어 멀리 곡산읍까지 가서 의사선생님을 모셔왔다.

하지만 어렵게 모셔온 의사선생님은 별다른 진료도, 치료도 해 주시지 않고 달랑 주사 한대와 아스피린 몇 알을 주고 가셨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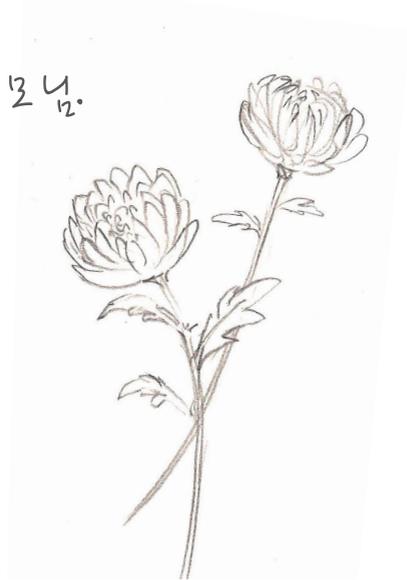
나는 어머니의 곁에서 어머니의 생명이 사그라지는 것을 허망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내 불쌍한 어머니는 영영 우리 곁을 떠났다.

고생만하랴 들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대를 효도 한번 하지도 못하고
보내드릴 수 밖에 없었던 내 부모님.

두 분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내 가슴 한켠이 아려온다.



사춘기 시절의 꿈은 교사였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함흥사범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교사라는 꿈을 심어주었고, 별다른 고민도 없이 교사가 내 운명이라 믿고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함흥사범을 다니던 중, 우연치 않게 가정교사자리를 제안받게 되었고,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마음에 흔쾌히 수락을 하였다. 처음 가정교사를 하게 된 집은 건설사업을 하던 아주 부잣집이었다.

그 집을 처음 방문하던 날, 으리으리한 외관을 보고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아,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충격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 충격도 잠시, 집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더 큰 충격이 나를 강타했다. 지지리도 못살았던 우리 집, 그리고 비슷비슷했던 우리 이웃들과는 너무 다른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부자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본 후, 내가 받은 충격은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전까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화려한 양주가 진열되어 있는 장식장과 처음 보는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집안 풍경은 한마디로 신세계였다.

과외를 가르치러 올 때마다 약간은 주눅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해 하며 그 집을 드나들었다.

그러던 중, 그 집 사모님과 이야기 할 기회가 생겼다.

“자네는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건가?”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선생님이 되어야겠지요.”

“월급쟁이로 일생을 살 건가? 잘 생각해 보게. 가난을 벗어나려면 학교 선생님이로는 힘들지 않겠나? 그러

지 말고 사업을 한번 해보게. 자네는 영특하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덜컹, 가슴이 내려앉았다. 선생님이 되어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내 막연한 꿈에 제동이 걸렸다.

여태껏 나는 공부만 열심히 했지 그 부분까지 깊게 고민을 하지 못했었다. 월급쟁이로 근근이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가난한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매달 받는 급여만으로는 역부족일 게 뻔했다.

사실 그때까지 선생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함흥사범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전혀 구상하지 못했었다.

그날 사모님과 대화로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었다. 새로운 도전과제가 생긴 것이다. 콩깨묵으로 끼니를 때우는 우리 가족을 위해, 지지리 가난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다. 잘 살고 싶었다.



,

1943년, 22세가 되던 해, 함흥사범을 무사히 졸업하고 재령의 국화초등학교 교사로 처음 부임했다.

내 마음속에서는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으나 사범학교 다니면서 관비를 받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5년간 교사생활을 해야 했다. 게다가 가진 종자돈도 없어 일단 교사생활을 하며 마련하기로 했다.

국화초등학교 근처에는 명신중학교가 있었는데 마침 초등학교를 졸업한 막내 동생을 계속 공부시키고자 명신중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생을 계속 공부시키고 싶었다.

가



당시 부모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내 월급만 가지고는 동생의 서울 유학을 지원할 수 없었지만, 대신 내가 근무하는 학교 근처에 있는 명신중학교라면 가능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학교측에서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내 동생을 불합격 처리시키고 말았기 때문이다.

동생을 계속 공부시킬 수 없다는 좌절감과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만약 돈만 있었으면 서울로 유학을 보내 남들 보라는 듯 떳떳하게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가난했고, 갓 부임한 교사에게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평생 무겁게 짓누르던 가난이란 굴레는 좀처럼 나에게서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후, 사범학교 출신의 교사들을 골고루 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년만에 다시 해주초등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당시 전쟁 중이던 일본은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명분으로 조선 청년들을 강제로 징용해갔다. 나 역시 그것을 피할 길 없어 영장을 받아놓고 있었다. 보호해 줄 조국이 없던 그 시절에는 이 운명을 거부할 방법은 없었다. 그렇게 1945년 8월 15일, 입대날짜를 받아놓고 하루하루 숨통을 죄이며 기다렸다.

일본이 패망을 했다!

1945년 8월 15일, 기나긴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독립을 한 것이다. 게다가 그 날짜는 바로 내가 일본군으로 끌려가기로 되어있던 날!

이렇게 역사적인 날, 내 개인의 역사 또한 다시 쓰는 계기가 되었다. 해방이 한 달만 늦었어도 나는 아마 만주 어딘가에서 총알받이가 되어 죽었을 지도 모른다.

그렇게 운 좋게 죽음의 문을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해방이 된 후 사회는 불안해졌고 이념문제로 여기저기서 싸움이 발생했다. 게다가 치안도 완전 엉망이었다.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인민위원회가 생기고, 그것이

좌파와 우파로 나뉘면서 심각한 이념대립이 발생했다.
밤이 되면 양쪽에서 총질을 해대는 통에 동료 여럿이 죽
어나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대립은 극에 달하고 생명의 위협이 목전까지 오는 상황
이 발생했다.

용케 입대는 피했지만 겨우 한 달만에 다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1945년 9월 14일,
집에 알리지도 못한 채 학교에서 바로 맨몸으
로 남하하게 되었다.

내 몸 하나 겨우 누일 수 있는 공간에
 지친 몸뚱이가 쓰러진다.
 누워서 바라본 천장이 너무 낮다. 코 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공기 냄새가 생소하다.

살아다는 안도감보다는 혼자라는 절망감이 나를
 짓누른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다시 집을 일으키겠
 다고, 내가 우리 집의 대를 보게 되겠다고 했던
 대들들과 고향에 남아있는 피붙이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이 뒤엉켜 눈물이 되어 흐른다.

이제 혼자 헤쳐가야 할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다. 하지만 내일을 위
 해 오지도 않는 잠을 억지로 취하려 눈을 감
 는다. 눈을 감으니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들. 나를 고향집에서 부
 러 때에 낼 수 밖에 없었던 비참한 시간들...

집에 들리지도 못한 채 곧장 개성을 통해 임진강으로 갔다. 그 당시는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탓에 사람들이 종종 38선을 넘나들었지만, 건장한 청년이었던 내가 아무 증명서도 없이 정식으로 38선을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안전원들에게 들키지 않고 강을 건너려면 그곳 지리를 완벽히 아는 안내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수중에 있던 몇 폰 중 30원으로 안내원을 고용한 후, 그와 나는 해가 지고 짙짙한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암흑 같은 밤이 되자 옷과 신발을 벗어 머리에 이고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9월 중순이었으니 그리 추울 때는 아니었지만 목까지 차오르는 늦은 밤의 강물은 내 몸의 온기를 가차없이 빼앗아갔다. 게다가 불안에서 오는 떨림까지 겹쳐 내 이는 의지와 상관없이 부딪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정적으로 가득한 밤, 물 가르는 소리와 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렇게 정신 없이 강을 건너 파주를 지나 서울로 들어왔다.

서울로 들어오니 미군이 주둔해 있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온몸을 소독한다는 명분으로 DDT(벼룩, 이 등을 죽이는 하얀 가루)를 머리부터 옷 속까지 뿌려주었다. 하얀 가루마저 뒤집어쓰니 내 자신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한 소녀에게
DDT를 뿌리고 있는 방역요원

아무 연고도 없이 서울로 내려온 첫 날은 너무 막막했다. 아는 사람도, 갈 곳도 없었던 탓에 무작정 서울 밤거리를 헤매 다녔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온갖 고민들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 때, 다행히 서울 제기동의 중암초등학교에 함흥사범 동창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 터라 실낱 같은 희망을 안고 중암초등학교로 찾아갔다. 다행히 동창의 도움으로 그곳 숙직실에서 잘 수 있었다.

숙박할 곳이 생기니 이젠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변변한 음식은 진작 포기를 했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장 저렴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 당시 가장 저렴했던 것이 밀가루라 주머니를 털어 마지막 남은 돈 300원으로 밀가루 한 포를 샀다. 지금 밀가루 한 포가 2만 3천원인것을 보면 300원은 지금의 한 3만원 정도였던 것 같다.

그리고 주변에서 야채를 조금씩 얻어 부침개를 만들어 모든 끼니를 때웠다.

이렇게 숙식은 해결했고,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 자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아무 준비도 없이 내려온 탓에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어느 하나도 없었다. 학교 상장은 물론, 사범학교 졸업증명서조차 없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교사직이 절실히 필요했다. 만약 교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내 앞길은 어찌 흘러갈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깜깜했다.

나는 함흥사범학교 5년간의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졸업증명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미 남북으로 갈린 현재, 함흥사범의 졸업증명서를 받을 길은 전무했다.

그렇게 온갖 고민으로 가득 차 있던 때, 다행히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 당시 함흥사범학교는 총독부 산하 교육기관이었으므로 입학 및 졸업사진이 총독부 관보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낸 것이다.

어렵사리 총독부 관보를 구해 제출하였고 다행히 종암초등학교 교사로 임명될 수 있었다.

그렇게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다.



중암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생활을 했다.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숙직실에서 기거를 하며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그렇게 악착같이 1년 3개월 생활한 끝에 120만원 가량의 돈을 손에 거머쥐게 되었다. 그 당시 120만원은 지금의 천만 원정도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종자돈으로 가능한 금액이었다.

，

李
春
姬

그 즉시 교사를 사직하고 나와 본격적인 사업의 길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교사직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려 하는 나를 극구 말렸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교사는 존경받고 상인은 천시당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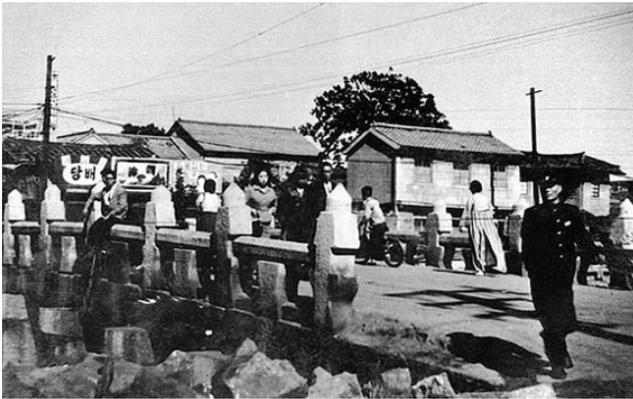
하지만 나는 돈을 벌어야 했다.



교사를 사직하면서 더 이상 숙직실에서 기거할 수 없게 되자 하숙 할 곳을 구해야 했다. 마침 제기동의 한 국회의원 집에서 하숙을 구한다고 하길래 그 곳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교사를 그만두고 처음 시작한 것은 노점이었다. 특별한 기술이 있지도, 그렇다고 종자돈이 많지도 않던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노점에서는 이북 피난민들이 가져온 옷가지나 금붙이, 시계 등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이윤을 붙여 파는 그런 장사를 했다. 대체로 3할 정도 이윤을 볼 수 있었는데 운이 좋은 때는 배의 수입을 얻을 수도 있었다.



1950년 서울의 모습 (수표교, 가두노점)

그렇게 장사를 하던 중 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다. 종암초등학교 교사시절, 6학년 담임을 할 때였다. 그때 지금의 처남이 우리 반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학부형으로 처음 만난 장인어른은 당시 슬하에 1남 4녀를 두고 계셨다.

그 중 나와 같은 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셋째 딸이 갑작스레 결혼을 하게 되었다. 신랑은 일본 와세다대 출신의 엘리트로 전라도지방에서 큰 부자로 알려진 집안 아들이었다.

그러나 둘째 딸보다 셋째를 먼저 보낼 수가 없었던 장인어른은 어느 날 나를 집으로 초대 하셨다.

그것이 내 아내와의 첫만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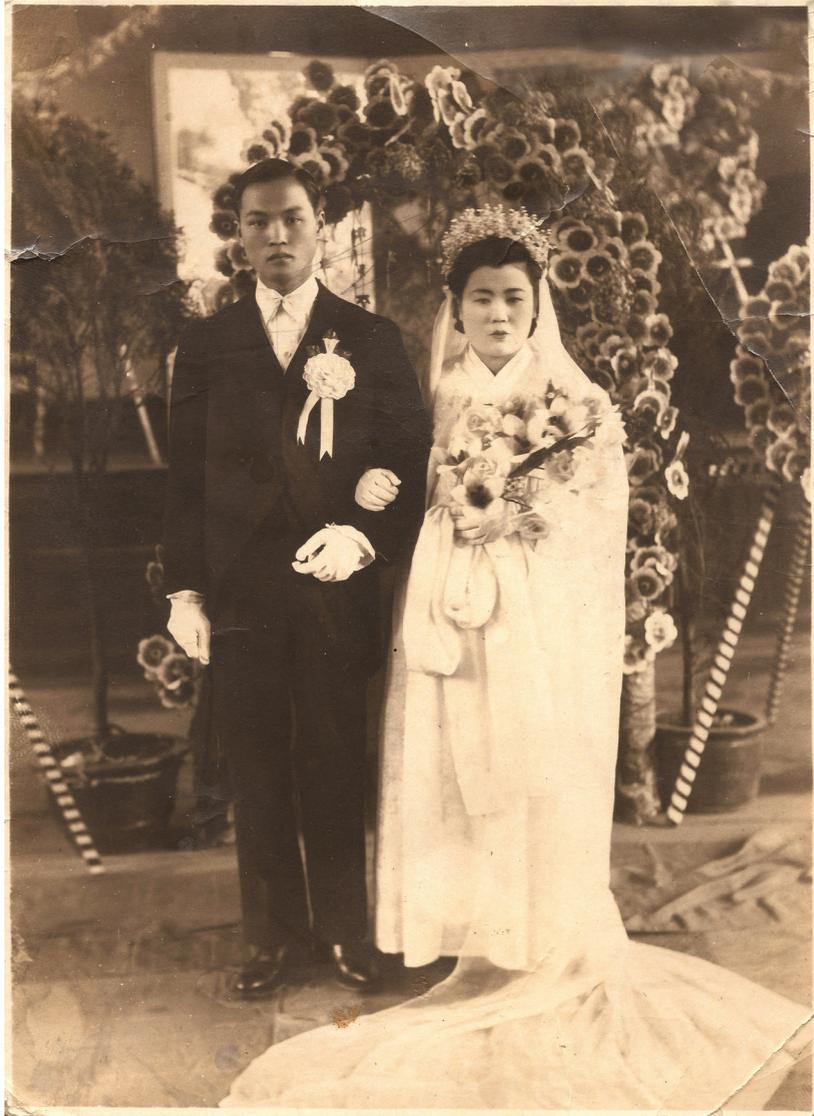
나를 마음에 두고 계셨던 장인어른께서는 당신의 둘째 딸과 내가 맺어지길 바라셨던 것이다. 그 초대가 일종의 맞선자리였다고 할까……

나의 아내가 된 둘째 딸은 숙명여학교를 거쳐 경성여자사범학교(지금의 서울대 사범대학)를 나와 돈암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재원이었다.



경성여자사범학교 재학시절의 아내 (오른쪽)

내 아내와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꽃 튀는 그런 첫만남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내의 온화한 인상과
눈빛에서 보이는 총명함은
나에게 편안함과 따뜻함을 주었다.



[결혼식 사진] 1948년 3월 20일 서울 YMCA에서 올린 결혼식

그렇게 내 나이 26세, 나의 아내 이춘희는 24세가 되던 1948년, 경기도 도지사의 주례 하에 YMCA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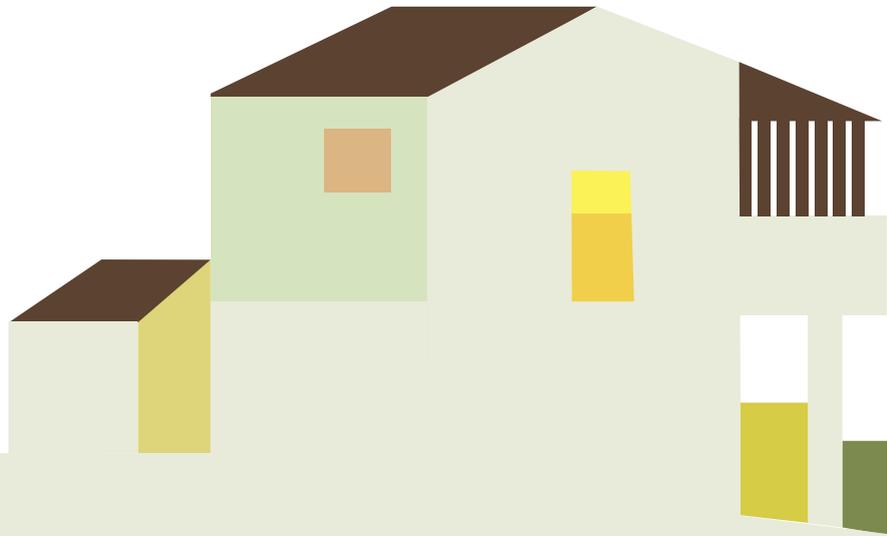
우리는 서울역 앞에
단칸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 가정을
꾸린 아내는 내가 하는
일에 늘 협조적이었고,
2남 2녀를 얻어 다복한 가족
생활을 엮어나갔다.

가

그 당시 나의 가장 큰 꿈은 서울하늘 아래 내 집을 갖는 것이었다. 황해도 내 본가의 튼튼한 기둥은 되지 못했지만 내가 만든 나의 가정만큼은 거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 줄 그런 집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줄 그런 집이 나에게서 절실했다.

그러던 중, 해방 후 일본사람이 버리고 간 남대문 근처의 적산가옥*을 친구를 통해 구입

* 적산가옥 [敵産家屋] 적산(敵産)은 본래 '자기 나라의 영토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의 재산 또는 적국인의 재산'을 뜻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일본인들이 물러간 뒤 남겨놓고 간 집이나 건물을 지칭한다. 국내의 적산가옥은 해방 후 일반인에게 대부분 불하(拂下)되었다.



할 수 있었다. 노점을 하며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그 집을 샀을 때는 천하를 다 얻은 듯 기쁨에 겨웠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집 판 돈으로 화학공장을 차려서 나와 함께 동업을하기로 한 그 친구에게서 일곱 달 정도 지나도 별 소식이 없자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 알아보니 공장도 집도 다 팔고 도망간 뒤였다.

당시 적산가옥은 불하를 받아서 등기를 해야 정식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던 나는 등기도 하지 않고 그 집을 구입한 탓에 결국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최초로 모은 목돈을 그렇게 날려버리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서울 하늘아래 내 집을 갖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치는 것이 나에게 왜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사기를 당한 탓에 집에는 돈 한 푼이 없었고 게다가 먹을 것조차 없어 결국 아내가 친정에서 쌀을 얻어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었다. 하지만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다시 힘을 내어 뛰기 시작했다.

그 후 예전 학교 동료 교사로부터 시험지 등사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학교 창고에서 등사기를 밀어 시험지를 만들다가 점차 일이 커져 출판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로 아동용 상식용어집과 같은 교육 서적을 제작하였다.

해방 후 급변하는 사회에서 UN자료 등을 통해 새로운 용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마땅

히 물어보거나 해석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책에 의존했었다. 그 덕에 책은 잘 팔렸다.

그렇게 돈을 조금씩 모은 후, 다시 행당동 논과 밭 근처에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조그만 집을 사게 되었다. 비록 은행담보로 사긴 했지만 다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무척 기뻐다.

그 후에는 마르크스 자본론을 서울대 학생에게 번역시켜 책을 제작하였다. 그 당시는 사회주의 사상이 만연하여 관련 서적이 잘 팔렸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대열에 동참하였다. 하지만 내가 제작하여 인쇄까지 마친 그 책은 시중에 팔지도 못하고 사장되게 되었다.

바로 6.25전쟁이 터진 것이다. 이로서 나의 출판사업도 막을 내렸다.

1948년 결혼한 다음 해인 1949년에 큰딸이 태어나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을 당시 아내의 뱃속에는 7개월이 된 둘째가 있었다.

준비 따위라고 하나도 없이 우리 가족은 전쟁의 한 복판에 떨어지게 되었다. 만삭의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피난을 갈 수 없었기에 정부도 버리고 떠난 서울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온갖 고생을 하며 그렇게 버티다가 해가 바뀌고 1951년 1월이 되었다. 그 해는 어쩐지 눈도 많이 오고 몹시 추웠다.

국군과 연합군의 선전으로 한반도 수복을 눈 앞에 둔 시점, 중공군의 참전으로 연합군은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다. 소위 1·4 후



퇴가 일어난 것이다.

1·4 후퇴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피난을 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러 있었지만, 1·4 후퇴가 일어나자 서울에 남아있던 모든 장정들은 강제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국군의 수가 모자란 탓도 있었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남아있는 장정들이 인민군으로 포섭될 수 있다는 명분이었다.

그래서 나 역시 가족을 남겨두고 방위군이라는 명목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입대를 하게 되자 아내는 홀로 딸 둘을 데리고 피난을 가야 했다.

그러나 끊어진 한강다리 때문에 서울의 피난민들은 피난 갈 길이 막막했다.

아내는 수소문 끝에 돈을 주고 배를 얻어 타 한밤중에 몰래 한강을 건너기로 했다.

하지만 사공은 처음 약속과 달리 배를 타고 가다가 아기가 울면 아기를 바로 강물에 던져야 한다는 약속을 해야 배에 태워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아기 때문에 배에 탄 다른 피난민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큰 딸은 그래도 세 살이라 말귀를 알아들었지만 갓난아기였던 둘째 딸은 어찌 할 수 없었다. 달리 방법이 없던 아내는 대충 약속을 하고 배에 탔다고 한다. ‘하느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안고.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배를 탔는데 다행히 아무일 없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배에 내려 아내는 두 딸을 데리고 트럭을 얻어 타고 김천까지 피난을 갔다. 겨우 방은 얻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 다른 피난민들에게 밥을 한 숟가락씩 얻어 먹으며 연명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홀로 고생을 하던 아내는 서울이 다시 수복되면





서 무사히 두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방위군이라는 명분으로 남아있는 모든 서울 청년
들과 함께 소집이 되었다. 국군은 그렇게 소집한 청년을
두 무리로 나눠 한 무리는 대구 쪽으로, 다른 한 무리는
전라도 쪽으로 데리고 내려갔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전라도 쪽으로 내려간 청년 무
리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아서 아사한 사람이 많
았다고 한다. 일인즉슨, 국가에서 배급된 식량을 중간 간
부들이 개인적으로 빼돌려서 벌어진 일인데, 국회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현장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관
련 간부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현장조사단

이 공비라는 허위 정보를 날려 국군들이 사격하게 하여
현장조사단을 몰살시켜버렸다고 한다. 이것을 소위 방
위군사건이라 하여 그 후 책임자는 총살 당했다고 한다.
나는 다행히 대구 쪽으로 내려갔는데, 대구로 내려가는
무리의 배급도 그리 좋지는 못했다.

배급으로 나오는 것은 주먹
밥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여기저기 영양실조에 걸려
쓰러지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잘 때는 이불도 없이 학교 교실에서 쪽 잠을 자야 했는데
너무 추운 나머지 지푸라기를 부여잡고 벌벌 떨며 혹한
의 1월을 견뎌야 했다.

대구에 도착한 우리들은 단 일주일 동안 총 조립과 분해
방법, 사격하는 방법만을 배운 채 바로 전쟁터로 내 보내
졌다. 그렇게 총알받이가 되어 죽어나가는 인원이 하루
수천 명에 달했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일주일의 훈련이 끝나고 자대를 배치 받아 조만간 다가올 총알받이의 운명이 내 앞에 떡 하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다시 행운이 찾아왔다.

군대가 학도병, 방위병 등 새로운 명칭의 조직이 생겨나며 규모가 커지게 되자 체계적인 자금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윗선의 명으로 경리담당하사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번 기회를 잡으면 총알받이의 운명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공부라면 자신 있었고, 장사와 사업을 하며 직접 돈 관리를 한 덕에 경리 시험에 붙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었다. 정말 간절히 시험에 임했고 그 결과 당당히 합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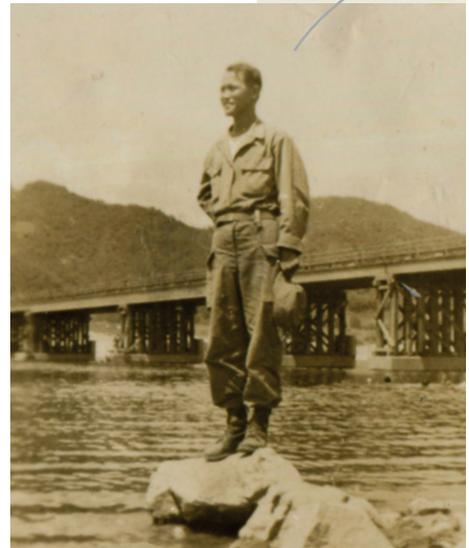
그렇게 합격과 동시에 전쟁 일선에서 빠질 수 있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일선에 배치되면 그날 밤 사이로 8할이 전사했다.

전쟁은 치열했고, 애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던 그런 시절이었다.

경리담당하사관이 된 나는 6개월간 받아야 하는 하사관 교육을 단 20일간, 그것도 대구의 동촌 과수원에 임시로 차려진 학교에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필요경비가 많이 든다는 핑계였는데 전쟁 통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경리담당장교 선발시험이 생겨, 하사관시험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다시 장교시험을 치러 장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이 죽을 운명을 넘어선 것을 고마워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나보다 못한 친구들이 장교가 된 것을 보니 조금 억울했다.

그렇게 계급도 없는 방위군에서 경리하사관으로 진급하여 군대생활을 시작하였다.



곧장 소령급 2명과 함께 미3사단 카추샤를 관리하는 경리하사로 들어가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들어가 경험한 미군부대는 완전히 별천지였다. 물자가 귀하던 전쟁 통인데도 불구하고 미군 부대 안에서 온갖 물품이 철철 넘쳐나고 있었다. 2년 정도 지난 통조림 등은 모두 소각하거나 바다에 버리고 있었고, 일회용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마음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었다. 불과 한달 전, 주먹밥 하나 먹지 못해 배고픔에 허덕였던 나에게 미군부대는 정말 신세계였다.

이건 나야. 내가 미군 부대에 근무할 때인데 이때는 너무 배배배 말랐겠지. 키가 176cm였는데 몸무게는 고작 57kg밖에 나가지 않았을 정도였지. 하도 살이 빠져서 너무 걱정이 되어 미군 부대 의무실에 갔었는데, 의무관도 폐병이 있는 줄 의심할 정도였어. 하지만 진찰 후 별 문제 없다는 진단을 받고 안심했지. 그런데 서울에 와서 며칠 있으니 식욕이 나고 몸도 좋아지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해봤더니, 미군부대에서는 하루에 보통 일곱 여덟잔의 커피를 마셨던 거야. 식후에 한잔씩, 그리고 식사 중간 커피타임 마다 한잔씩, 그렇게 온종일 커피를 달고 살았지. 바르 커피가 달이었던 거야. 잠이 안 와서 살이 빠져서 그런 거지. 그래서 커피를 딱 끊었더니 다시 살이 오르더라고. 그런 일도 있었지.





인제 관대리
복역시절

이렇게 풍부한 물자 덕분에 카추샤들은 미제물건을 외부에 팔아서 용돈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아직까지 그때 먹던 아이스 콘의 맛이 생각난다. 시원하고 달콤했던 그 맛은 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때때로 점심시간에는 손바닥만한 돼지고기가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감지덕지하고 맛있게 먹었지만 나중에는 누린내가 많이 나서 안 먹고 내 놓으면 잔반 처리로 피난민들이 받아가서 죽 끓일 때 같이 넣어 끓여 먹곤 했었다. 그렇게 부대 안과 밖의 차이는 극명하였다.

그 후, 인제군 관대리에 소재한 10군단 미군 총사령부에서 2년간 일을 했었다.

나는 참운이 좋은 사람이다.
일본군으로 징집되는 날 해방이 되었고,
방위명으로 총알받이가 될 상황에서
경리해서관이 되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 곳에서는 업무상 매달 한번씩 헬기를 타고 여의도의 비행장에 내려 용산 육군 본부에 출장을 나와야 했다. 그 덕에 매월 한번씩 집에 들러 보고픈 우리 가족을 만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1953년에 드디어 휴전이 되었다.

나는 미군부대에서 육군본부로 복귀함과 동시에 후생산업을 맡게 되었다. 후생산업이라 함은 자금이 부족한 군대의 자금확보를 위한 업무였는데, 쉽게 말해서 장사였다.

군용트럭 10대를 활용하여 돈을 벌어오란 명령을 받은 후, 군 보급품인양 하며 서해안에서 소금을 가져다 주문진이나 속초 등지에서 팔고, 동해안에서 건어물을 사와 동대문에다 팔았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산에서 나무를 잘라 팔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다 팔기도 해서 군대 돈벌이를 해주었다. 당시 군대는 이렇게 엉망인 상태였다.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닌 군대에 속해있는 노동자였다.

한번은 속초에서 양미리*를 사와 동대문에 내다 팔았는데 좀처럼 팔리지가 않았다. 처분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 때마침 화폐개혁이 일어나 돈 가치가 마구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싹짓돈은 물론이고 은행에 예치되었던 돈까지 찾아다 물건들을 사재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양미리가 동이 나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간의 군생활도 끝나가고 있었다.

* 양미리 자료사진





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195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쟁직후라 모든 것이 불안했고, 모든 사람들
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

나 역시 이 시기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닌가 한다. 나
혼자의 몸이면 어떻게든 살 수 있었겠
지만 나는 책임져야 하는 아내와 아이
들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수중에 돈은 없었지만 휴전 후 인플레이션 덕
에 다행히 행당동 집값이 많이 올라있었다.
그래서 행당동 집을 팔고 왕십리로 이사를 하
면서 은행 용자를 갚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남은 약간의 돈을 무역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얼마 안 있어 그 무역회사가 부도를 맞았다. 그렇게 또 한번 돈을 몽땅 날려버리고 실패의 쓴 맛을 봤다.

전쟁 직후 투자 실패로 우리 가정의 생계는 무척 곤란해졌다. 어쩔 수 없이 아내는 또 한 번 친정에 손을 벌리게 되었다. 정말 면목이 없었지만 장인어른께서는 나를 끝까지 믿어 주시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다. 지금도 장인어른께서는 늘 감사한 마음이다.

이제 종자돈도 없고, 전쟁 후라 사회분위기는 어수선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했다. 하지만 나는 가장이므로 가족을 위해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무너진 내 가족의 울타리를 다시 세워야만 했다.

무엇을 할까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예전 함흥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올라와서는 소공동을 근거지로 무역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 무역업이라 하면 미국에서 전후의 우리나라

라에 경제적인 지원 차원에서 투여한 AID 자원을 활용한 1할 장사였다.

한국사람들에게는 자본이 전혀 없었던 시기여서 상인들은 한국 돈으로 1할만 걸고 AID달러를 배정받았다. 그것으로 환 달러를 받아 물건을 수입할 나라로 송금을 하면 부산 앞바다까지 물건을 실은 배가 왔다. 그렇게 물건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 통관하기도 전에 그 물건을 동대문시장의 중간 상인에게 팔았다. 그렇게 물건이 다 팔리고 난 후에 잔금을 지불하면 되었다.

다시 말하면 1할의 주문계약금만을 가지고 물건을 들여와 판 후, 남은 9할의 잔금은 물건이 다 팔리면 지불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이윤은 투자금의 10~30배에 달했다. 일반적인 장사가 3~4배 정도 남던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벌이었다. 그래서 이 때 무역을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현재의 제일모직과 같은 재벌들도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종자돈이 없었던 나는 직접 무역사업을 할 수는 없었지만 1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 친구의 요청으로 도와주게 되었다.

내가 하는 일은 부산의 물건을 통관시켜 동대문에 납품하고 받은 돈을 다시 친구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일은 나 혼자 다 하고 그 친구는 앉아서 돈을 버는 형국이었다. 자본이 없던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친구에게 고용되어서 일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사업 파트너 형태를 제안하여 수입의 몇 %를 받기로 하고 약 2년간 서울-부산을 정신 없이 왔다갔다하며 사업을 추진 하였다.

그때는 전후라 옷이 귀할 때였기에 홍콩, 호주 등지에서 공작실, 중세사, 모사 등을 들여와 팔았다.

당시 별도의 송장도 없던 때였지만, 나중에는 심부름해주던 사람에게 편지지의 빈 공간을 찢어 내 이름 석자인 '장몽인'을 써 주면 바로 통관을 시켜 줄 정도로 주변에 신뢰를 쌓아갔다.

그렇게 통관된 물품을 부산역에서 부치면 서울역에서 찾아와 손수레를 끌고 주문한 가게에 일일이 배달해 주었다. 그렇게 다시 일년간 발로 뛰어다니다 보니 수중에 300만원이라는 목돈이 생겼다

그 당시 모사가게에서는 내가 납품한 모사로 옷 짜는 집에 납품을 하였다. 그 때만 해도 옷 짜는 일은 일일이 손으로 할 때라 생산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에서 요꼬라는 편물기계가 들어오면서부터 편직의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속도가 빨라지니 당연 모사의 소비도 부쩍 늘어났다. 게다가 뒤이어 다이마루 기계까지 들어오면서 하루에 몇 십 야드씩 편직이 가능해졌다. 그것을 재단하여 하루에 몇 십장씩 스웨터가 생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모사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지켜본 나는 모사도매상을 하면 좋은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300만원으로는 겨우 보증금 정도만 충당할 수 있는 돈이라 고민을 하던 차에 평양에서 온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나와 동업을 제안하였다. 자신이 보유한 700만원과 내 돈 300만원을 합쳐 사업을 시작해 보자는 것이었다. 게다가 투자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5대 5로 하자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나는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승낙을 하였고,
이렇게 해서 1957년, 동대문 시장에서
모사 도매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옛날 가게 근처

장사는 잘 되었고 1년 후인 1958년
에는 중부시장이 새로 지어지면서
그 쪽으로 가게를 옮기게 되었다.
그 당시 중부시장에는 모사가게로
만 30여개의 점포가 있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자, 동업자의
부인은 투자금액이 다른데도 수익
을 반반씩 가져가는 것 대해 불만

을 표현해왔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 모사가게를 운영하
는 방법도 익히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동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불만이 계속되자 더 이상 동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
기에 동업자에게 현금거래와 가게를 내어주고, 나는 외
상거래만 맡아서 바로 옆에 따로 모사가게를 내게 되었다.
그렇게 동업자와 경쟁관계로 돌아서게 되었으나 그 친
구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 동업자는 현금이 있었으니

현찰로 물건을 싸게 사서싸게 팔 수 있었고, 현찰이 전혀 없던 나는 싸게 구입할 수 없으니 당연히 싸게 팔 수 없었다. 경쟁이 될 수 없었던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었다. 할 수 없이 상업은행에서 당좌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청주에 있는 영세한 면사공장을 알게 되어 찾아갔다. 공장의 시설이 영세하여 그런지 실의 굵기가 균일하지 못하고 굵었다 가늘었다 하였다. 그 탓에 아무도 그 실을 사가지 않아 창고에 재고로 잔뜩 쌓여만 있었다. 그 집에서 면사기계를 저렴하게 어음으로 사와서는 면사기계로 모사를 뽑아냈다. 모사 세네 겹을 합해 다시 실을 뽑으니 굵기가 균일한 실이 나왔다. 그것으로 옷을 만들면 원가가 확 줄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실로 옷을 만들어 창고에 넣어두고 가을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중에 창고에서 그 옷을 꺼내보니 오랜 시간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던 탓에 면사를 묶은 부분이 썩어서 검게 변해 있었다. 이 상태면 제 값을 주고 팔기는 무리였다.

또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미 많은 투자를 한 상태

여서 이렇게 포기를 하면 엄청난 손해가 날 게 뻔했다.

고민하던 차에 실을 자세히 보니
면사만 썩었지 합해진 모사는 문제 없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옷을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니
색이 변한 부분이 감쪽같이 가려졌다.



증부시장 사업동료 모임

기지를 발휘한 탓에 그 옷들을 다 팔고 다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현금으로 어음을 막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와 동업했던 그 친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빚에 쫓들리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모사가게 야유회(청평 현리)

노래하는 아내

모사가게를 하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한 나의 아내. 내 아내는 노래를 아주 잘 해서 야유회를 가면 꼭 지명되어 노래를 하곤 했다. 다시 들을 수 없는 아내의 노래가 아직도 내 귓가에 선하다.

가

1965년 모사 장사를 하던 중 화신 백화점 박흥식 회장이 일본 자본을 끌어들이며 강남 개발을 한다는 정보를 들었다.

주변에서는 헛소문이라 만류를 했지만 나는 소식을 듣자마자 강남을 둘러보기 위해 나섰다. 기회는 시도한 사람들에게만 성공이라는 보답을 주기 때문이다.

강을 건너야 강남으로 갈 수 있었는데 당시는 한강에 다리가 없어 한남동에서 뗏목에다 지프차를 싣고 한강을 건너와 강남을 둘러보는 수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배 발만이 행하니 있어 정보에 대한 믿음
을 가질 수 없어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언젠가 강남이 개발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1965년 한국 마케팅협회 이사 자격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필리핀 마닐라에 잠시 들릴 기회가 있었다. 그 당시 마닐
라는 이미 구 시가지와 신 시가지가 나뉘어져 있었고, 신
시가지에는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었다.

조만간 서울도 마닐라처럼 구 시가지의 남쪽에
위치해있는 강남지역에 신 시가지가 조성되어
큰 도시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있던 차에 1969년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을 발표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다시 강남으로 건너왔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다.

당시 모사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거의 다 외상거래여서 수중에 현금이 없을 때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다.

외상거래처를 다니면서 받아야 할 금액의 10분의 1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모은 후 과감하게 모사사업을 접었던 것이다.

주위사람들이 미쳤다면서 모두 말렸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은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그렇게 모험을 한 덕에, 1975년 강남역 사거리에 현재 나의 사무실인 명선빌딩을 준공하게 되었다.

결혼하고 총 8번의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면서 조금씩 내 꿈에 근접해갔다. 강남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1973년 논현동에 내 집을 지어서 살아 보았고, 1989년부터 현재의 양재동 집에서 살고 있다.



명선빌딩(1977. 8. 20 촬영)

나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명선빌딩.
여전히 나를 반겨주는 사무실이 있는
이 빌딩은 나에게 추억 그 이상이다.



(위에서 부터 차례로)
명선빌딩기초공사 (1975),
강남역사거리 지하철 공사현장 (1979),
그리고 명선빌딩에서 촬영한
강남역 사거리의 2012년 모습



1954년 행당동 집

우여곡절이 많았던 행당동의 집. 전쟁을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집 덕이 아닌가 한다. 나에게겐 참으로 고마운 집이다.



1960년대 전후 신당동 집

나의 가족은 내 삶의 기준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내 가족을 품을 수 있는 서울 하늘 아래의 집,
모든 고난과 역경을 막아낼 수 있는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

그 꿈을 내 손으로 이루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1968년 오장동 집

내 삶의 모든 것인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 아내와 자녀들 덕분에 내 삶은 행복했고 풍성했다. 내 아내가 되어주어서, 내 자녀가 되어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한다. 내 가족들……



1973년 논현동 집



양재동 자택 앞 (2012)

나의 아내는 성품이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항상 내가 하는 일에 협조적이었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내 아내의 배려심 덕분에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고마운 아내는 1998년, 신장이 좋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항상 바빴던 나는 내 아내를 잘 돌봐주지 못했다.

모사사업을 할 때 야간대학에 다녔던 나를 대신해 오후 4시부터 아내가 가게를 보았다. 아내는 어린 네 자녀들을 보듬으며 혼자서 가



1987년 6월 필라델피아
처제집 방문했을 때

계를 운영하느라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바빴다. 그렇게 해서 얻은 신우염 때문에 늘 병원신세를 지며 고생을 했다. 게다가 아이 네 명을 옆에 끼고 공부시켜 전부 좋은 학교 보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는 무뚝뚝한 성격 탓에 자상하게 대해주지도 못했다.

그런 아내가 내 곁을 떠났다.

그제서야 비로서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평생 동반자였던 나의 아내,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던 나의 아내, 사업을 하면서 나와 함께 많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던 나의 아내……

그런 아내가 고맙고,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여보! 고맙습니다.

내가 긴 시간에 걸쳐 이렇게 안정되게 사업을 펼
쳐나갈 수 있었던 것도, 또 네 남편 모두 훌륭하게
잘 지냈고 공부도 탁월하게 잘 해서 좋은 직장
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 것도, 그리고
당신이 떠난 뒤에도 이렇게 하나같이 효자효녀로
서 내 곁에 있어주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
이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간 빛나는 발자취라
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가족에게 제대로 감정을 표시하지 못했던 내 생
각 탓에 살아생전 한 번도 당신에게 고맙고 사랑한
다는 표현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소.

여보! 늘 내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던 당신이 없었
으면 지금의 나와 내 자식이 누리고 있는 이 혜택
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소. 당신이 믿었던 그
하느님이란 존재가 정말 있다면 나중에 당신을
다시 만나게 해주리라 믿고 싶소. 그때만 바라리라.

힘든 시기에 함께 고생하고 알뜰하게 가족들을
보살펴주셨던 당신! 무엇보다 나와 함께 살아
주셨던 당신!

정말 고맙소. 그리고 사랑하오.



1992년 나의 칠순잔치

나와 아내는 항상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왔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러했듯이 나 또한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배움에 길이 있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 내 아들 딸들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 자신들이 나아갈 길을 찾길 바랐다.

다행하게도 내 자녀들은 모두 잘 따라왔고, 대견하게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갔다.

큰딸(장명)은 내가 결혼한 이듬해인 1949년에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큰딸은 경기여고를 나와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를 수석입학하고 수석졸업하였다. 큰딸은 졸업하자마자 미국 서던일리노이주립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을 떠나기 직전 큰딸은 학생치고는 꽤 많은 돈이 든 통장을 내게 내밀었다.

“아빠, 내가 대학 다니는 동안 꼬박꼬박 받았던 장학금이야. 거기에 운동화나 옷 같은 것 사지 않고 모은 돈도 같이 저축했어. 외할아버지 용돈을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아빠가 관리해줘. 난 아빠의 감을 믿으니까.”

워낙 꼼꼼했고 자신의 앞길을 성실히 개척해 나가던 큰 아이다운 행동이었다.

현재 큰딸은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큰 사위(백승기)는 텍사스주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귀국하여 경원대학교 초대학장, 경원대학교 수석부총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은퇴하여 명예교수로 있다.



장녀 장명 결혼식

사랑하는 큰 딸의 결혼식. 큰아이를 보낸다는 생각에 몇 날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난다.
첫 아이였고, 첫 결혼식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장녀 장명 가족



둘째 딸(장선)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 9월에 태어났다. 전쟁 중에 태어나 고생을 많이 했던 둘째 딸은 1.4 후퇴 때, 피난을 가던 중 죽을 고비를 넘겼었다. 그때 고작 갓 백일이 지났을 때인데, 밤에 몰래 한강을 건너던 중 만약 둘째가 울었다면 사공에 의해 강에 던져졌을 것이다. 다행히 하늘이 보살펴 곤히 잤던 덕에 기적적으로 살아 남았다.

둘째 딸은 이화여대 영문과를 수석졸업하고 국제 로타리 장학생 자격으로 미국 브라운대학에 유학을 갔다. 그리고 20여년 동안 미국생활을 했다. 그러다 1993년 가족들과 함께 귀국을 하여 17년간 송실대 교수로 재직하다 작년에 조기 은퇴를 했다. 그 덕에 나와 같이 시간도 보내며 처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다.

유학 중에 만나 결혼한 둘째 사위(유기창)는 미국 Westinghouse, 서울 우면동 LG종합기술원에서 근무를 했고, 그 후 사업을 하다 재작년에 은퇴하였다.



1979년 장선 결혼식

아내 없이 홀로 참석한 둘째 딸의 결혼식.

두 딸의 결혼식에 참석 못한 아내는 두고두고 아쉬워했다.

나의 아내는 두 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둘 다 미국에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건강이 좋지 않던 아내는 미국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정부의 방침 상 외국여행에 제한이 많았던 탓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홀로 결혼식에 참석했으나, 어머니로서 두 딸의 결혼식을 보지 못한 심정이 어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차녀 장선 가족

장남(장해일)이 태어났을 때는 대를 잇는다는 기쁨에 너무 좋아 온 방 가득 촛불을 켜 놓고 축하를 했었다. 그 당시 부모형제 없이 고향을 떠난 혈혈단신 혼자였던 나에게 큰 아들은 천군만마 같은 존재였다.

큰 아들은 연세대 공대를 졸업한 후 나를 도와 바로 사업의 길로 들어섰고, 지금은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있다.

다른 세 아이는 모두 유학을 다녀왔지만 큰 아들은 보낼 수가 없었다. 내 뒤를 잇게 하겠다는 나의 욕심이 컸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혼자 유학을 못간 내 큰 아들을 보면 아직까지 마음이 시리고 미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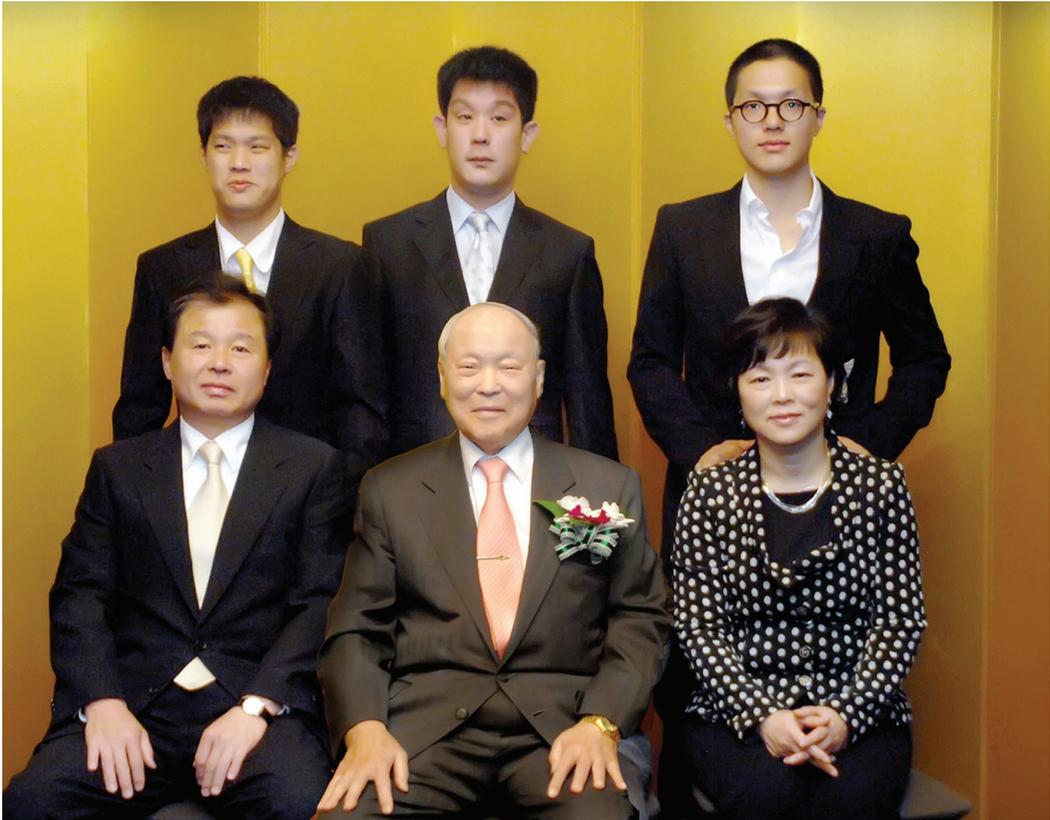
큰 며느리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와 항공사에 근무할 당시 큰 아들과 만나 결혼을 하였다. 결혼 이후 줄곧 나와 한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침 6시 40분이 되면 호박죽, 미숫가루, 달걀프라이와 블루베리, 샐러리, 흑은 마 등을 갈아서

나에게 갖다 준다. 또 일주일에 한번씩 직접 목욕을 시켜 주기까지 한다.

사실 큰며느리는 시집 오자마자 아내가 많이 아파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었다. 그 후 아내가 세상을 뜨고 이제는 내가 건강치 못해 또 시아버지의 수발을 들고 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평생 시어른 수발을 들며 살고 있는 셈이다.

너무 고맙고 미안한 내 큰며느리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무엇보다 큰아들 부부는 결혼 초부터 나와 아내를 봉양하면서 가족여행을 함께 많이 다녔다. 특히 그동안 아내의 건강때문에 자제해 왔던 해외여행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곳을 함께 다니면서 여행에 대한 나의 갈망을 풀어 주었다. 미수(88세) 잔치 때는 큰아들의 주도 하에 대형버스를 대절하여 사 남매 가족들과 2박3일간의 남해여행을 다녀왔는데, 맛집기행을 겸한 대가족 여행으로 즐거운 추억을 안겨주었다.



장남 장해일 가족



작은 아들(장해철)도 역시 어릴 때부터 총명하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대 공대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그 후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는 바로 건국대학교 교수로 활동하였다. 그와 동시에 개인적으로 설계사무소를 내서 운영하더니 교수직보다는 실무를 하는 설계사무소쪽 일이 더 적성에 맞는다며 교수직을 사직하고 지금까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작은 아들이 직접 설계한 작품들은 우리 가족의 역사적 상징을 이루고 있는 몇 개의 건물을 통해 고스란히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작은 아들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다.

또한 작은 며느리는 우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자주 나를 찾아온다. 매주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같이 찾아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곤 한다. 게다가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발견했다며 옷도 사 들고 오고 내가 적적하지 않도록 살갑게 말동무도 해 주는 그런 따뜻한 며느리다.



차남 장해철 가족

내 아이들은 모두 효자효녀이며 효부이다.

이렇게 내 자녀들은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다. 이런 자녀들은 나의 삶의 의미이고 내 존재의 이유이다.

이런 자녀들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언제나 행복함으로 충만하다.

노년에 내 자식들과 함께 떠난 수많은 해외 여행과 국내 여행들, 매주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모여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사랑스런 나의 자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너희들에게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행복감을 느끼며 매 시간을 감사하게 보내고 있다.”

가 ,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많은 기대를 하셨다. 그래서 내 위 형들보다 나를 더 많이 지원해 주셨고, 형들도 그런 부모님을 이해하고 잘 따라줬다. 그 때문인지 나는 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컸고, 힘든 우리 집을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항상 다짐을 했었다.

하지만 예고도 없이 다가온 운명으로 부모님을 여의게 되고 형제들을 떠나 나만 홀로 서울에 자리잡게 되었다.

맨손으로 혼자 시작한 객지 생활이었지만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항상 죄를 지은 듯 마음 한 편이 아려왔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막내 동생(장몽준, 1934년 생)을 만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서울역 앞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할 때여서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서울에 아무 연고 없이 내려 온 막내 동생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나 역시 혈혈단신으로 내려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더욱더 막내 동생을 챙길 수 밖에 없었다.

그 일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다. 단칸방에서 어린 딸을 키우며 시동생까지 데리고 있기란 어지간히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부모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어렵게 만난 막내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내 아내에게는 미안하고 또 고맙다.

그 후 막내 동생은 미국 유학, 월남전 참전 등 많은 일을 겪었고, 나 또한 사업을 하여 바쁜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던 중, 막내 동생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다가왔다.

예전부터 중요한 순간에 막내 동생의 발목을 잡았던 지병인 협심증은 결국 막내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밀고 갔고, 끝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막내 동생은 나에게서 떠나갔다.

둘째 형과 여섯째 동생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만날 수 있었다.

1950년대 후반, 둘째 형(장몽필, 1919년생)을 만났다.

복잡한 동대문 시장 한 가운데서 기적처럼 마주친 둘째 형! 그 순간의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전쟁 통에 아내와 자녀를 고향에 남겨두고 혼자 남하하게 된 둘째 형은 아무 연고 없는 서울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형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드렸다. 그 후 둘째 형은 다시 결혼을 하고 3남매를 두었다.

1984년에는 여섯째 동생(장몽옥, 1929년생)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여섯째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남하한 이후 근 40여년 가까이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한참이었고 나 또한 형제들을 찾고자 신청을 했지만, 신청자가 워낙 많았던 지라 방송 대상으로 포함이 되지 못해 무척 안타까워

하고 있을 때였다. 방송을 통해 헤어졌던 가족을 찾은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마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뛰었고,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갔다.

그러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분이 우연히 내 이름과 비슷한 '장몽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워낙 우리 형제들의 이름이 독특했던 터라 나는 여섯째 동생이 맞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40여년만에 희뿌연 한 반백의 머리를 한 여섯째 동생을 만나게 되었다.

내 조카들은 하나같이 다 착하고 영특하다. 나는 조카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고 훌륭하게 성장한 조카들은 나의 기쁨과 자랑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국내외 우수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조카 손주들을 보며 그들 역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 왔다.

젊은 시절 혼자의 몸으로 시작한 서울 생활.
하지만 이제 나의 가족은 그 어느 집 못지 않은
대가족이다.

내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조카와 조카 손주들까지 포함하면 50~60명 정도가 되는데,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생일과 아내 생일에 맞춰 일년에 두 번씩 모두들 불러 모아 같이 식사를 했고, 아내가 없는 지금은 내 생일 마다 모여 같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어찌하다 보니 첫째 형과 넷째 형을 제외하고 형제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채 다하지 못한 일은 이 두 형님의 가족들을 보살피지 못한 것이다. 혹시나 두 형님들도 남하했을까 하여 이산가족 찾기 명단에도 올려놓아 봤지만 그 당시 방송 명단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내 살아생전에 그 가족들이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지 막막할 뿐이다.

옛말에 ‘처자는 의복과 같고 형제는 수족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그 당시 아내는 내가 가족보다 형제를 더 끔찍이 생

각하는 것 같다고 가끔 서운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형제들과 그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살림꾼 아내가 힘들어 했던 적도 많았지만, 나에게도 형제들 또한 내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울 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탓에 나에게도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나의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여섯 형제들을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다.

살아생전 효도 한번 못한 불효자란 생각이 항상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다 한 효도 대신에 내 형제들과 조카들을 돌봐주었다.

그래야 후에 부모님을 뵈었을 때 부족한 아들, 이렇게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았다고 당당하게 부모님의 얼굴을 뵈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손녀 장유희가 그린 할아버지 초상화

90년의 세월이 꿈같이 지나갔다.
아주 긴 세월 동안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많
았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한국 근대
사의 역사적인 모든 순간을 몸소 느끼며 살아
왔다. 이런 힘든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삶의 기준은 가족이고, 내 존재의 이유 또한 가족이다. 가족을 위해 집이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필요했고 나는 그것을 위해 노력했다.

지나온 긴 세월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 겪었던 힘들었던 일,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많았지만 지나고 나니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목표했고 이루고자 했던 가족을 위한 집과 내 가족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성공했다 생각이 된다.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만족한다. 다시 인생을 산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다복하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정말 나는 운이 좋았다.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겼고, 좋지 않은 운명도 수 차례 비켜갔다. 그리고 내 소중한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다. 이제 내 자녀들은 어찌면 내 보살핌이 더 이상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내 힘이 허락하는 한 내 자녀들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만날 사랑하는 아내에게 멋진 남편으로 서고 싶다.

이제 어느덧 나와 같이 나이 들어가는 내 모든 것인 나의 자녀들……

“아들, 딸들아,
욕심내지 말고 건강 유지하면서 살아라.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내 인생의 해는 점차 저물어가고 있다.

굳이 흔적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내 구부정한 허리 위에, 폭 숙인 목 뒤에 흘러간 세월이 똑똑 흐르고 있다. 앞으로 얼마간의 인생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남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언제나 한결같이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





사무실 책상옆 벽에 붙어 있는 한시
 대만의 유명한 서예가가 서울 방문시
 직접 그 자리에서 써 준 선물

사무실 벽에 있는 한시가 눈에 들어온다.
지나온 내 세월을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는 듯한 문구가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에 남는다.

노을에 안개가 떨어지니
백로가 일제히 날아가고
가을의 강물은 긴 하늘과
같은 색을 이루고 있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 전체를 태우고 강물을 태우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붉히듯, 내 인생의 석양이 아름답기를
바란다.

[방계 가계도]



[직계 가계도]



부친: 張智淵
1890~1942

모친: 李智花
1892~1943

張夢祥
1921~?



1948년 결혼



본인: 張夢仁
1923~2012

아내: 李春姬
1925~1998

張夢玉
1929~1989

張希秀 1958
張希權 1960
張希福 1963
張金淑 1966

張夢俊
1934~1962

張 佩 1955
張海泳 1956
張美英 1958



柳基昌
1946 -



차녀: 張善
1950~



장남: 張海一
1953~



李明卿
1954~



차남: 張海哲
1956~



李畢淑
1958~



엘버트왕
1976~



柳根喜
1980~



柳根壹
1982~



유수진
1982~



張仲賢
1983~



張再賢
1985~



張圭賢
1988~



張義正
1986~



張有希
1991~



張伊賢
1995~



유빈
2010~

• 자녀들이 어렸던 때



(장녀) 장명



(장남) 장해일



(차녀) 장선



(장녀) 장명



(차남) 장해철



(장남) 장해일



(장녀) 장명



(장남) 장해일



(차남) 장해철의 중학교 졸업식

• 가족과 함께



새로산 차에 타고 있는 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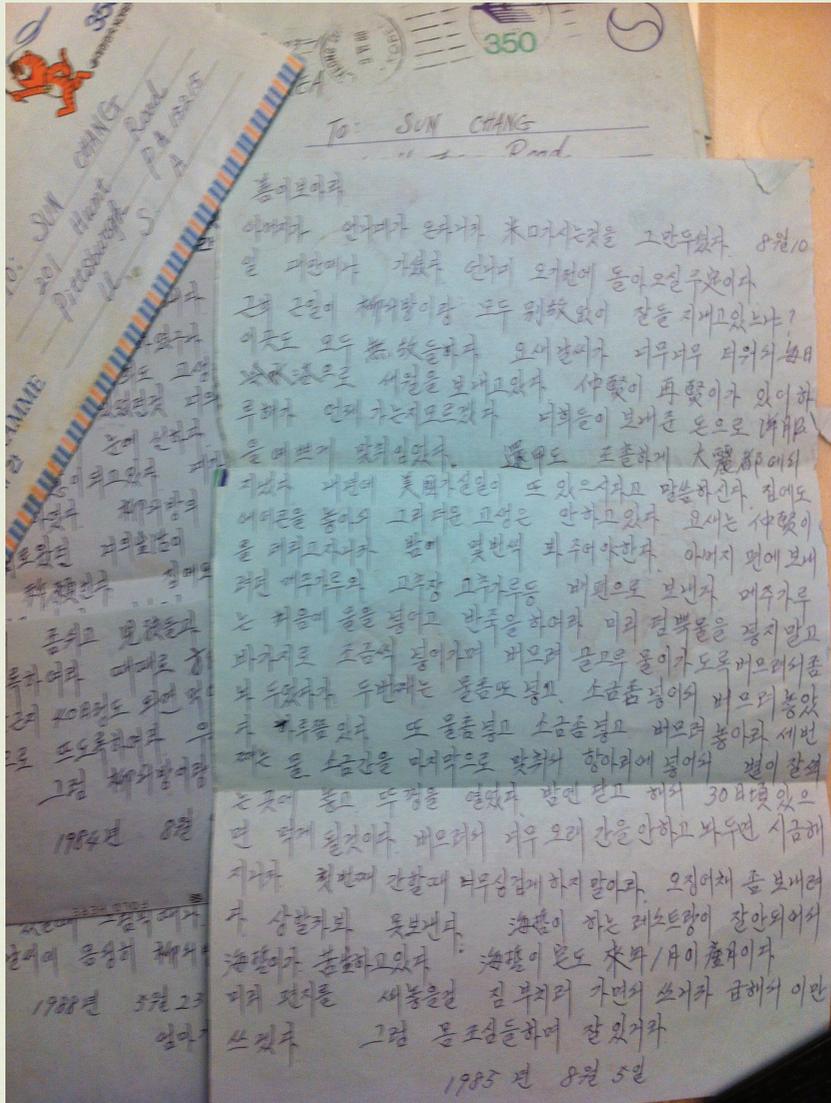
장남 해일은 어릴 적 어디든 나를 따라 다니려고 하여, 자주 데리고 다녔다.



차남 해철과 설악산에서



가족들과 남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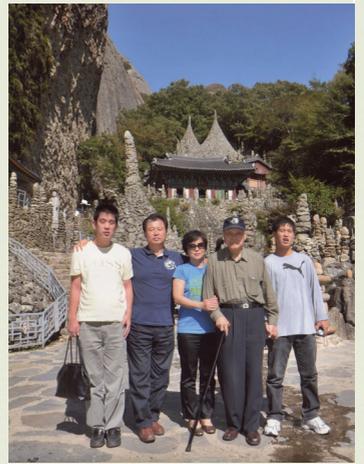
국제편지(아내의 자필) 아내는두 딸이 대학졸업하자마자 연이어 미국유학을 떠나는 바람에 많이 허전해 했다.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수시로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고 미국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부치곤했다.



미국 딸네집에 방문했을 당시



아내와 함께





큰아들 장해일 가족과 함께 2006년 일본 북해도에서
 내 자녀들과의 여행은 항상 즐겁다.
 훌륭하게 장성한 자녀들과 혈기 넘치는 손주들과의
 여행은 나에게 많은 힘을 준다.



미수여행



- 국학대학, 고려대 경영대 연구반,
서울대 경영대 시절



국학대 졸업사진



고려대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졸업사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리셉션



理事選任狀

장몽인 同門

母校 發展과 同窓會 活性化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感謝 드리며
 귀 동문을 서울大學校總同窓會 第19代
 理事로 선임합니다.

「서울대가 마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이를 실천
 하기 위한 同窓會의 노력에 깊은 이해와 참여
 있기를 바라면서 이에 本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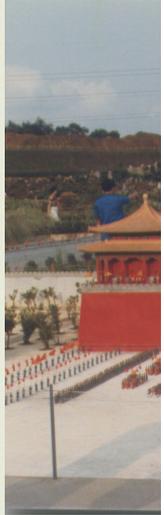
2002年 4月 9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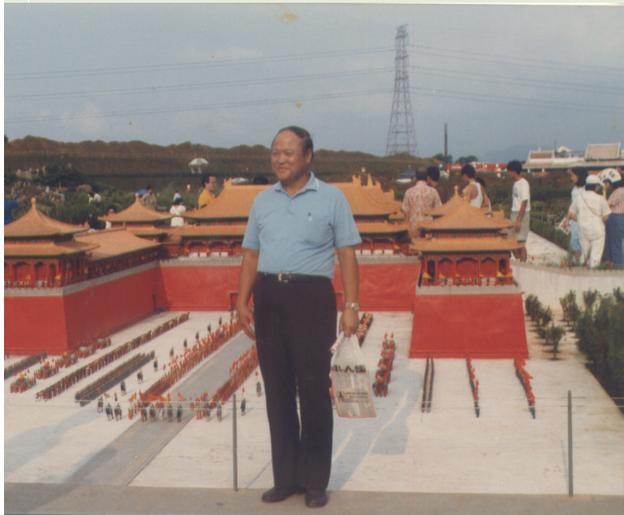
서울大學校總同窓會

會長 林 光



• 일과 이야기





작은딸과 함께
주현미 디너쇼에서 찍은 사진
(2012년 12월 19일)



• 구순잔치(2012. 12.9)





장남 장해일 가족



차남 장해철 가족









어머니에 대한 회상과 입원중 극진한 지시들의 호도

및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 (1) 엄마는 나와 결혼후 가진 고생을 다 겪으면서 먹고 살만한 기반을 닦았고 아들, 딸들은 일류대를 졸업시켜 한국사회 중요 일군으로 키워는데 대해 크나큰 성취감과 만족을 느끼고 계셨으며, 인생을 살아온 보람과 자랑스러움을 가슴에 품고 오래오래 사시려고 하셨다고 본다 그래서 와병 중에 한 발자국 떼기조차 부자유한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해야 산다고 동네공원 까지 3, 400미터 밖에 안되는 거리를 30분이나 걸려서 왕복 산책 하면서 때로는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허벅지와 팔에 피멍이 들면서도 매일 반복하시는 것을 보고 눈물 겨워 했다
- (2) 투석 시작하기 몇 년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경성 여자 사범 동창회에 봄이 불편하여 혼자서 갈 수 없다고 하여 내가 보디가드로 따라가 회의에 참가하고 회의 도중 그 사실이 전체 회원에 보고되어 단상에 올라가 천 여명 회원의 박수 갈채를 받은 것이 기억에 삼삼하다. 또한 엄마가 투석을 시작한 후에도 중현아빠가 투석약과 저울을 차에 싣고 용평, 양평, 강릉등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식당에서 또는 콘도에서 여러사람 보는 앞에서 투석을 해가며 어머니를 위로해 주었으며 특히 소금강에 갔을 때는 등산로 옆의 길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서 투석을 하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다
- (3) 엄마는 금혼식에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금혼식 잔치를 크게 버리지고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건강이 점점 나빠져 화장실 출입도 잘 못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잔치를 안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 친구들만 초대하는 잔치와 친척만 초대하는 잔치는 하게 되었는데 3월 20일의 어머니 친구들 모임날은 일기불순으로 추워서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게 되었고, 기관지까지 나빠져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되었으며, 3월 22일날 친척들 모임에는 혼자 걸기가 힘들어 의자에 앉친채 여러명이 들어서 연회장에 입장파 퇴장을 시켰다. 그날 모임에서 그렇게 반죽해 하시던 어머니는 3월 23일 입원하고야 말게 되었다
- (4) 입원후 중환자실과 입원실을 오락가락 하면서 5개월 가까이 투병생활을 하셨다 물론 간병인을 두었으나 중현엄마는 매일 환자의 보조식사 거리와 간병인 식사를 해 나르고, 환자를 뜯 눈으로 지키느라고 잠 못잔 간병인을 2 - 3시간 휴식 시키느라 거의 매일 오후에 3 - 4시간을 혼자 간병하는 곤욕을 치렀다 중현 아빠는 대려도에서 때때로 엄마의 특식과 간병인 특식을 해 날랐고 점심, 저녁때는 병원에 꼭 들러 엄마 식사시중을 들었고 의정 엄마, 유니스 엄마, 근희 엄마도 매일 한 두 번씩 들러 식사시중, 양치질, 대.소변시중을 들었으며, 대변을 못 볼때에는

손가락으로 변을 후벼내는 곤욕을 치렀다 나는 그럴 때 마다 감각에 겨워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토, 일요일은 간병인이 쉬는 날이어서 아침은 근희 엄마, 오후는 유니스 엄마가 간병하고 저녁과 밤은 중현 아빠와 의정 아빠가 교대로 간병하며 밥을 새웠다. 그 동안 엄마는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하면서 투병생활을 하였으나 큰 고통을 호소 할적은 없었고 숨이 차다는 소리와 가슴이 답답하다는 소리는 몇 번 하였다 병원측도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였으나 너무 오랜 투병으로 기력이 약해져서 더 이상 병세를 들어킬수 없었다, 3월 18일 새벽 1시 5분 결국 숨을 거두고 마셨다.

- (5) 엄마는 돌아가시면서도 자식들에게 고생을 덜 시키려고 하셨는지 새벽 1시에 돌아가서 장례식의 넉넉한 시간 여유를 주셨고 게릴라식 장마칠마저 피해 좋은 날씨에 장례식을 치룰수 있었다
- (6) 이번 장례식에는 예에 따라 중현 아빠는 부조금을 받지 말자고 그랬으나 내 생각은 내 일생중 경조사에 수 억원을 축의금, 조의금으로 썼으나, 자녀 결혼식 네 번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축의금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번 만큼은 조의금을 받아서 장례비용으로도 쓰고 수재의연금도 내고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도를 보여준 머느리와 딸들(아들들의 극진한 효도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에게 효도상을 시상 하기로 결정 하였다. 양해해 주기 바란다
- (7) 이번 장례식은 계획을 잘 세워 일사불란 하게 치루었으며 허례허식과 낭비를 하지 않았으며 큰 실수는 전혀 없었다고 본다 특히 현재 한국을 이끌어가는 지명인사들이 그렇게 많이 조문 온 것을 보고 우리 가족들의 사회적 위상을 새삼 생각 하게 되어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 (8) 이번 장례식에 중현 엄마는 지관을 대리고 묘소에 가서 수백호름을 보고 그 자리를 피했으며 시신 안치 방향도 정했고 성당의 미사행사도 마련 하는등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고 본다
- (9) 근희 엄마는 엄마의 위독함을 보고 근희 유학 대동을 연기까지 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16일날 도미하여 일도 못보고 도착 즉시 되돌아오는 곤욕을 치르게 하여 미안하기 짝이 없다.
- (10) 아무튼 이번 어머니 장례식에 네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한다. 앞으로도 네가족이 화합 단결하여 세파를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

1998. 8. 22.

아빠가

日本の恩師 그리고 同門들

1968年 海外旅行이 只今처럼 自由롭지 못하였을 때 이야기이다. 호주 시드니에서 開催된 世界마케팅 會議에 韓國代表團의 一員으로 參加하고 歸國길에 咸師 2學年때 担任이셨던 恩師 中村 喜代志 先生님을 찾아뵙기 위해 福岡에 들렀을 때다. 事前에 書信으로 福岡 到着時間을 알려드렸었지만 飛行場까지 마중나와 주시고, 또한 高級中國飲食店에 자리를 마련하여 福岡市에 居住하는 中村宏(2回卒),日高文男(2回卒), 宝徳正是(6回卒)等, 生覺지도 않았던 同門들이 같이 자리하여 歡迎宴을 베풀어주시는 것이었다 그 뿐 아니라 그 다음날은 中村恩師任이 直接案内役을 맡아 市内名所觀光을 시켜주시고, 멀리 本州關門인 卜關까지 同行하시어 源氏, 平家이야기의 遺跡과 日清講和條約締結 場所등을 仔細한 說明과 함께 보여주시고, 關門터널을 걸어서 門司까지 오시며 咸師時節부터 지나온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시는 것이었다. 얼마나 자상하시고, 고마우신 배품이었는지 感激또 感激할 뿐이었다.

福岡을 떠나 新幹線便으로 東京에 들러 咸師 1學年때 担任이었던 進邦憲三 恩師任에게 電話를 걸었더니 交通事故를 당해 舉動이 不便하니 自己집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長野區弥生町에 있는 先生任宅을 訪問하였더니 飲食店壽司定食을 시켜놓고 반겨주셨다.

이야기 저야기하며 食事を 미치고 돌아올 때 先生任 自身の 書藝作品 20余点を 싸주시며, 이것이 先生任의 마지막 선물이 될거라고 하시며 눈물을 글성거리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 때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歸國한 몇해後 先生任의 逝去消息이 들려왔다.

1987년인가 88년인가 記憶이 아물아물하지만 論峴洞에 居住할 때 일이다. 지독한 감기에 걸려 쿨럭쿨럭하며 집에 누워있는데, 日本에서 왔다는 사람에게서 電話가 걸려와 나가보니, 威師講習科 3回卒 島崎梅次郎 同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自己아버지가 서울가면 나를 찾아봐라고 하셨다고 CASIO 전자손목시계를 선물로 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몸이 不便하였지만 그를 데리고 테헤란路에 있는 宜陵 옆 갈비집으로가서 갈비를 한참 뜯고 있는데 갑자기 기침과함께 코피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코피가 멎지를 않자 島崎氏가 나를 부축하여 내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얼마나 미안하였는지 只今까지 罪悚스럽다.

1995年 친목회 모임에서 沖繩에 觀光旅行을 갔을 때다. “나하”市에 到着하여 K2卒 同門인 仲宗根 繁 先輩네집에 人事次 電話를 걸었더니 本人은 不在中이고, 夫人이 電話를 받아 安否만 傳하였다. 仲宗根 先輩는 沖繩縣 教育長을 지냈고, 沖繩에서 威師同窓會를 開催했을 때 主役을 맡아

보신분이다. 翌日 우리一行은 아침일찍 버스를 타고 沖繩
北쪽으로 觀光次 떠났다. 仲宗根 先輩께서는 아침에 우리
가 묵은 호텔에 들렀으나 이미 우리가 觀光次 떠난 뒤라
우리가 탄 버스를 뒤쫓아 車を 몰고 1時間半以上 걸리는
沖繩北쪽에 있는 樹木公園까지 오셔서 공원 擴聲器로 나를
呼出까지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저녁 늦게 호텔로 다시
찾아오셔서 만난적이 있다.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모
르겠다.

1999年 맞아들네 食口와 같이 九州地方 旅行을 떠나, 長崎,
하우스템포스, 雲仙, 熊本, 阿蘇山, 別府 등을 거쳐 福岡郊
外에 있는 太宰府天滿宮에 들렀을 때다. 비가 부슬부슬 내
리는 침울한 날이었다. 天滿宮 구경을 끝내고 駐車場에 들
아와 보니 2回卒 中村宏 先輩가 비를 맞으며 서있지 않는
가. 거기서 한 時間이나 가다렸다고 하면서 귀중한 선물을
건네주는 것이었다. 가슴이 찡하였다. 그리고 2回卒 日高文
男氏は 飛行場으로 직접 歡送 나올것이라고 귀뜸해 주셨
다. 飛行場에 가서 탑승 時間이 되자. 일찌감치 비행기에
올랐는데 日本航空女職員이 내 좌석을 찾아와 日高文男 先
輩의 명함과 그의 書藝作品선물 보따리를 傳해 주시는 것
이었다. 그가 비행장에 늦게 到着해 直接 만나 뵈지 못하였
던 것이다. 感激해 마지 못했다.

日本内に 나와 同期 卽 3回卒 同門은 事務局長인 堀内 暢 (長野縣 居住)한사람 뿐이다. (書信連絡可能한 사람), 서로 身勢타령까지 해가며 長文의 書信을 交換하는 同門은 同期 生외에 尋常科 2回卒 및 6回卒 3-4名과 講習科 卒5-6名이 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주에게 하고 싶은 말

- 1) 말을 아껴라. 세 번 생각 한 다음 한마디 하여라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 할까 곰곰히 생각해 보고 말을 끄내이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도 다 들어야 하느니라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 이라는 격언을 잊지 마라. 설치지 말고 험뜯는 소리, 군 소리랑 하지를 말고 칭찬만 하여라
- 2)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남을 먼저 존경하여라 지절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느니라. 몸 높이를 낮추고 살난체, 아는체 하지들 마라 저혼자 잘난체, 아는체 떠드는 사람보다는 남의 말을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신중하게 한마디 하는 사람을 따르고 존경하게 마련이니라. 묻거든랑 가르쳐 주기는 하되 알고도 모르는척 어수룩 하여라 남에게 편안감을 주고 어수룩 하여야 남이 따르고 존경받게 되느니라

• 장몽인(張夢仁) *Life History*

1923년 12월 11일 황해도 곡산군 운중면 유촌리 (현, 덕흥리)166에서 출생
 父장지연(張智淵, 1890년생)과母이지화(李智花, 1892년생)의
 7남중 5번째아들

1935년(13~14세) 곡산군 운중면 운중소학교(4년제) 3학년 편입(시험)

1937년(15~16세) 곡산군 보덕소학교 5학년 편입후 졸업

1939년(17~22세) 함흥사범학교 재학

1942년 부친사망

1943년 모친사망, 함흥사범졸업, 황해도 재령국화초등학교 교사 부임

1944년 함경도 해주초등학교로 전근

1945년 8월 15일 입대예정이었으나 해방(일본패망)으로 인해 무효화

1945년 9월 14일 사상대립으로 희생자가 많아지자 해주에서 단독 남하

1945년 서울 종암초등학교 교사 (6학년담임)

1946년 교사생활 1년 3개월만에 사직 후, 1946년 국학대학교(교육과정) 야간입학

1948년 동대문장사시작

 3월이춘희씨와 결혼하여 서울역앞 뒷길 단칸방에서 신혼살림 시작

1949년 장녀출생, 출판사 경영, 국학대학교 졸업(3년과정)

1950년 차녀출생, 7째 동생 만나 신혼단칸방에서 함께 기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1951년 1·4후퇴때 징용, 아내와 두딸만 한강건너 피난

1953년 장남출생, 한국전쟁 휴전 및 군제대

1954년 행당동으로 집사서 이사.

1956년 차남 출생

1957년 동대문시장에서 동업으로 모사도매상 시작
1958년 중부시장으로 점포이전, 동업자와 헤어진후 단독사업 시작
1961년 오장동으로 이사
1964년 고려대 경영대 연구반
1965년 서울대 경영대 입학 및 졸업(1967)
1965년 한국마케팅협회 이사
1969년 모사 도매사업을 끝내고 역삼동 사무실 개설
1972년 장녀 결혼
1973년 논현동으로 이사하여 강남생활 시작, 명선빌딩 착공
1975년 명선 빌딩준공으로 사무실이전
1976년 영동 라이온즈클럽 창단(강남구청자문위원 25명으로시작)
1979년 차녀 결혼
1982년 장남결혼
1982년 대려도 개업
1983년 장남 결혼
1983년~1984년 354-D지구 국제라이온즈클럽 재무총장
1985년 차남결혼
1989년 양재동 현재집으로 이사
1993년 12년 11월 칠순(고희)잔치
1998년 3월 결혼 50주년 금혼식
8월 부인 이춘희(당시 74세)님과의 사별
2010년 12월 미수잔치
2012년 12월 9일 구순잔치
12월 30일 세례식 (세례명: 요셉)





장몽인 요셉은 ‘나의 인생이야기’ 작업이 한창 마무리되고
있던 12월31일 급성폐렴으로 작고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영전에 인생이야기 완성본을 올립니다.

[나의 인생이야기] 장몽인

꿈꾸는 삶의 기억들

2013년 2월 10일 초판인쇄

◎ 지은이 장몽인

◎ 기획총괄 김은미, 김지희

◎ 지 원 방혜진

◎ 디자인 최혜윤

◎ 펴낸곳 (주)스튜디오 크로스컬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3 등 빌딩 3층

전화 02 562 8055 / 070 8880 8055 | 이메일 mylifestory@crossculture.com

ISBN 978-89-966897-4-4 0304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지하며,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주)스튜디오 크로스컬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ISBN 978-89-966897-4-4